



통권 153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4. 7. 10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파병반대! 고 김선일 님을 추모합니다



[사진 '통일뉴스' 김규중 기자]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이달의 시 • 5/ 출소장가수를 찾아서 박창수 선생님 정나래 • 6/ 추천글 정육식 • 8/ 우리민족대회
참관기 김혜정 • 11/ 출소양심수의 편지 김형주 • 14/ 감옥에서 온 편지 김광수 • 16/ 감옥에 보내는 편지 이용준 • 17/ 양심수의 목소리 민경
우 • 18/ 이런 회원 은종복 님 오영순 • 20/ 특집-김선일 추모 • 22/ 새 운영위원 박미옥님을 만나 임미영 • 24/ 회원마당 김혜순 • 27/ 나의삶
나의일터 박상렬 • 28/ 연재-봉화에서 사는 이야기 ③ 차정원 • 29/ 시사만화 • 33/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4/ 재정 보고 • 43/ 회비납부 • 44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874-4063 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민가협: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죽음을 몰아온 전향공작과 고문 참상, 피해자에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을 폐지하고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촉구한다 —

권오현 회장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유신 독재시대 국가권력기관이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상 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 씨등 3명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 했음을 재확인하고 강제전향에 죽음으로 항거했던 이들을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를 없애는 데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했다(이로써 비전향장기수로 의문사 진정을 하여 1기때 인정된 변영만, 김용성 씨에 이어 5명으로 늘어났음).

뒤늦기는 했지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인간기본권의 필수적 조건인 양심의 자유 폭을 넓혔다는 데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되어 사람임 자체를 거부당한 채 부당한 전향공작의 잔혹한 고문과 그 후유증으로 숨져갔거나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전향이라는 오욕의 한을 안고 살아온 당사자들에게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권위주의 시대, 냉전시대에 자행되었던 권력기관의 반인륜적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가해자와 그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의문사 진상 규명법의 올바른 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냉전시대 산물로 남아있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을 없애고 전향했다는 이유로 미루어지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2차 송환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 발표 보도 자료에서 '깡패 동원, 강제급식, 고문, 전향공작이 부른 살인! 반인륜적 전향공작에 굴하지 않은 양심의 죽음'이라고 핵심내용을 요약하였다. 또한 비전향장기수 모두를 전향시킬 목적으로 '좌익

수행자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지침'(1973.8.2) 등에 따라 전향전담반을 두고, 사상 전향교회사를 특별 채용, 이들과 폭력재소자를 시켜 비전향장기수들을 상시폭행, 강제급식 등 잔혹한 고문으로 죽게 하고서는 '심장마비'나 '비관자살' 등으로 은폐 조작했으며, 지휘감독한 상층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말단직원에게만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향공작 과정에서 자행된 잔혹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는 물론 이번 발표로 처음 알려진 것은 아니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면서 감호처분에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들의 증언과 저서, 발표회 등을 통해서 그 잔혹함이 드러났었고, 이를 토대로 민가협에서는 '장기복역양심수 실태자료집'을 낸 바 있었다.

또한 1997년 6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연대 주최로 열린 민족민주 열사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에서 '옥중희생자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문(권오현)에서도 최석기씨 등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인정된 5명을 비롯한 79명의 옥중사망 비전향 장기수 실태가 발표된 바 있었다. 이들은 강제급식으로, 강제전향에 맞서 자살로, 굶어서, 폭행 등 고문으로,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었다.

그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 김규호 - 전남 강진 출신, 일본 경도제국대학 철학과 졸업, 평양에서 농민신문 주필과 교수 등 역임, 1950년 일본에서 공작원으로 체포, 오무라 수용소를 거쳐 서울로 이송, 무기형 복역. 김규호씨는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한 심한 위장병으로 하루라도 약이 없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겪었다. 전담반은 이를 전향공작에 악용, 약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넣어 준 약까지 압수하고, '전향을 해야 내주겠다'며 매일

불러내어 매질을 했다. 당국에서는 김규호씨가 이론이 밝은 지식인이고 인격적으로 감방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을 겨냥, 집중공작을 했다. 1976년 6월 28일 아침에 업혀나가 저녁때 초죽음이 되어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업혀왔고 다음날 아침 점검시간에 창틀에 목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 최한석 - 경북 상주 출신, 일본 음악학교 졸업, 피아니스트, 원산에서 성악가와 결혼, 함경남도 최신후 간부 등 역임. 1957년 남쪽으로 내려와 체포, 복역함.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음. 1976년 5월 어느날, 당국에 약을 청구했으나 간수는 '너는 간첩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며 비아냥댔다. 최한석씨가 '내가 북에서 내려온 것은 내 고향 상주를 찾아온 것이다. 외세를 몰아내고 부모형제와 통일 세상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함이였다. 내가 간첩이라면 남과 북은 적대국이 되고 한민족 한조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너도 통일을 원한다면 네 머릿속의 그 반공사상부터 씻어내라'고 힐책하자, 간수는 감방 문을 따고 들어와 끌고 갔고, 얼마 후 초죽음이 되어 업혀 돌아왔다. 전향 강제를 위한 매일같이 이러한 매질을 당하다가 5.15일 비명소리와 함께 몸부림치는 소리가 나서 옆방 사람이 담당을 불렀으나 1시간이나 지나 의무과 직원이 왔을 땐 숨을 거둔 뒤였다.

• 이용훈 - 충북 옥천 출신. 서울 법률전문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졸업, 6.25 전쟁때 남쪽으로 내려와 원양어업회사 근무중 체포. 이용훈씨는 지식인이어서 더욱 가혹한 전향 공작의 대상이 되었다. 당국에선 전향공작으로 정신병 재소자와 함께 독방에 감금했는데, 정신병자가 오히려 이용훈씨의 도덕적 풍모에 감화되었다고 한다. 1985년 전향공작반의 테러가 계속될 때 피명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매일 고문을

당하자 '이대로 맞아죽느니 항거하여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고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남은 동지들이 내 뒤통까지 싸우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대전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일주일 뒤 전북 고창출신으로 일본 법정대학을 나오고 강원도 국영농장, 지배인 등을 역임했던, 이용훈씨와 절친했던 황필규씨도 전향강요 고문만행에 항거 자살했다.

이 같은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사상 전향을 강제하면서 자행된 반인륜적 고문의 잔혹함에 몸서리치게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삶의 의지를 꺾는 야만행위였다. 고문의 범죄성은 이미 온 세계가 공명했고, 그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총회에서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조약」을 결의 채택한 바 있다(1984.12.10).

이보다 앞서 세계 인권선언 제5조에서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서도 「고문 등의 금지」를 규정한 바 있다.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이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일제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와 우리 민족 의지와 반하여 조성된 냉전시대의 산물에서 비롯된 것이다. 치안유지법(1925년 제정, 1928년 개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12)과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1941.2)에서 비롯된 사회안전법(오늘의 보안관찰법)이 그랬다. 또한 사법당국통첩(1933)은 바로 사상전향제도가 되고 있었다. 이들과 관련된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과 사상전향제도는 1972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합의한 남북공동성명과 1975년 미국

의 월남전 패망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독재체제 구축과 직접 관련되고 있다. 바로 유신헌법(1972)과 사회안전법(1975.7.16)을 만들었다. 물론 사상전향제도는 일제 강점기 사상범전향 공작 그대로 해방공간 미군정에서도 이승만 정권 수립 뒤에도 이어오고 있었다. 바로 분단고착과 사상탄압으로 작용해 왔었다. 그러나 이 악명 높았던 사회안전법 사상전향제도 준법서약제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발표처럼 비전향장기수들의 목숨을 건 저항으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과 국제 인권협약에 위배되고 있었기에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고 1998년엔 사상전향제도를, 그리고 2003년엔 사상전향제도의 대체입법된 준법서약제도 없었다. 문제는 6·15 공동선언에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남아있고, 사회안전법을 폐기시키면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이 아직도 살아있어 반통일 반인권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소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보안관찰법의 위헌성과 그 폐해 사례를 들며, 특히 전향을 이유로 2차 송환을 미루고 있는 당국이 아직도 그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는 보안관찰법의 모순성을 밝히려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보안관찰법은 위헌성 등으로 사회안전법을 없애면서 대체입법된 반인권악법이다. 이 법은 사회안전법에서의 주거제한 보안감호처분이 없어진 대신, 보안관찰처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관이 아닌 행정부의 결정으로 처분되고 한번 처벌받은 일로 다시 처분당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사상,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하는 것도 사회안전법과 다르다. 보안관찰 처분을 당하면 3개월마다 중요활동을 보고해야 하고, 또 집을 떠날 때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보안관찰 대상자와의 회합, 통신을 해서도 안되고, 집회, 시위 장소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조건 없이 따라야 하고, 이 같은 의무, 금지사항을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이 민주사회라고 말하는 오늘도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이 놀랄 정도이다. 그런데 이 같은 냉전 악법이 출소한지 이십년이 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보안 처분이유에서,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이북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아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기에, 심지어 어떤 처분자는 필자가 맡은 인권강좌에 참석했기 때문까지도 포함되고 있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전향을 했기에 송환을 제외시킨 노인까지도 여전히 보안관찰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강제된 전향, 송환 거부, 보안관찰이란 3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목마르게 기다리게 했다. 인간성마저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야만행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하고, 보안관찰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비전향장기수의 사망확인과 반민주 악법 제도에 항거한 그들의 죽음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앞으로도 잘못된 법과 제도의 정비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구제가 요청된다고 했으며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의 인도적 조치를 정부에 권고할 것이라 했다. 백번 마땅하고 환영할 일이다. 사상,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보편 가치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철칙이다. 문명시대 야만행위는 끝장내야 하고 6·15 공동선언시대 낡은 냉전 사고도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잔혹한 고문 등으로 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죽음을 불렀던 강제전향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강제전향의 오욕을 안고 살아왔던 이들에게도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향과 가족을 북녘에 두고 있는 모든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무 조건없이 6·15 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따라 송환되어야 함을 말한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만나니 눈물입니다
다섯 번이나 강산을 갈아엎은
50년 기나긴 세월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에게도 정녕 혈육이 있었던가

아, 혈육입니다
다같이 한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입니다
뒷동산 동백나무 우에 올라
밀짚대로 꽃속 위 꿀을 함께 빨아먹던
추억 속에 떠오르는 어린 날의 그 얼굴을

눈오는 겨울밤
한이불 밑에서 서로 껴안고
푸른 하늘 은하수를 부르던

혈육입니다
이렇게 만났으니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한 시간도 못되게
그렇게도 쉽게 온 길을
어찌하여 50년 동안이나
찾으며 부르며 가슴을 말라우며 헤매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지 남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통일합시다

그 누가 이날까지
우리의 기나긴 아픔을 알아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통일을 선사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통일을 바라기나 했습니까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형제들이여 동포들이여
영원히 리별이라는 것을 모르고

7천만이 다함께 모여 살 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집을 지읍시다

이 밤이 가고
또 한밤이 또 한밤이 가면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
형제들이여 울지 맙시다
다시는 살아서 못 보는
그런 영원한 리별이 아닙니다

서로가 편지하고
서로가 전화하고
서로가 자유로이 오고 갈
통일을 한시 바빠 앞당깁시다

더 늙기 전,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어린날의 그때처럼
한지붕 밑에서 리별없이 살아봅시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편집자주]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열렸던 <우리 민족대회>를 마치고 난 후 계시판에 올라왔던 시입니다.

“사상이 종이 한 장으로 어디 가겠는가. 죽어도 양심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

- 남한에 연고 없어 홀로 서기 힘들어 -

정나래 기자(jnroiseau@hanmail.net)

병풍을 만들고 있는 장기수의 무뚝뚝한 손놀림. 장기수 박창수 선생(73세)과의 첫 대면은 병풍과 장기수라는 언뜻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병풍과 장기수가 어울리는 것도 같다. 병풍을 안빈낙도, 청빈한 생활을 상징하는 선비의 상징물이 라면 장기수 선생들의 물질보다는 정신을 위해 살아온 한평생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박창수 선생은 현재 2차 북한 송환을 신청해 놓고 있는 강제전향 장기수다. 박 선생 이외에도 29명의 강제전향 장기수가 송환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모두 전향 장기수라는 이유로 당국이 북한 송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상태다.

박 선생은 황해도 해주시 출신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작원 남파를 돕는 안내원으로 추천 받아 활동했다. 당시 29세 젊은 혈기로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불잡히면 죽는다”는 각오뿐이었다고 박 선생은 당시 결의를 회고한다. 공작원을 태운 배의 선장이었던 박 선생은 북한 노동당의 지시를 받고 남으로 내려가던 중국군들에 의해 포위된 채 불잡히고 말았다. 그 해가 박정화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이듬해인 1962년,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와 4살, 2살인 아들들을 그대로 이북에 남겨둔 채였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제일 커



“나 말고도 선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활동하고 있었지. 실제로 잡히거나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불잡힐 당시를 언급하면서 박 선생은 말끝을 흐렸다. 먼저 간 사람들에게 대한 살아남은 자의 죄의식과 변뇌의 표현일 터이다. 그래도 지금 당시의 각오와 결의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불

잡혔을 당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라는 각오로 항해를 지휘했다. 그래서인지 혼자가 된 지금,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다”며 애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감내하려 하시는 모습이다.

박 선생은 잡힌 뒤 취조 받고, 인천 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박 선생은 다른 장기수들처럼 초기에는 고문을 많이 받지 않았다. 그것은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가 아니라 체포되면서 총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박 선생은 고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말한다.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지. 밥을 조금밖에 주지 않으니 항상 배가 고파 있었지. 밥을 더 달라고 싸우고 그랬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박 선생에게 설움이 있었다.

장기수라고 핏박 받는 현실 속에서 남한에 가족이 없는 설움까지 더해졌다고.

“이쪽 사람과 이북 사람들을 따로 관리했어. 이쪽 장기수들은 가족이 가끔 면회를 오니까 더 신경을 쓰는

남한 '코담배' 병에 퍼져 추운 겨울에 몸도 못 풀

- 이북에서 이남으로, 이남에서 이북으로 -

눈치야. 그런데 이북 사람들은 그냥 사망했다고 신고만 하면 끝이거든. 더욱 관심 밖이었지”

유신 선포 후 전향공작 악랄

1973년에는 매를 죽도록 아무 이유도 없이 맞을 정도로 전향공작반의 고문이 극심했다. 1972년 10월 유신 선포 후 박정희 정권의 남북체제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그 여파가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미친 것이다. 당시 박 선생은 다른 장기수들과 함께 전향공작에 대한 단식투쟁을 하다가 옆방과 통방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아 결국 전향서를 강제로 쓰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 박 선생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마디를 하신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좋은 장으로 어디 가겠는가. 죽어도 양심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 강제 전향이 비전향에 대한 신념을 저버린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일 게다. 여기에 1차 북한 송환 때 전향했다는 이유로 송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함을 꼬집는 말이기도 하다.

박 선생은 전향 후 다른 죄수들과 10년 이상 같이 생활하다 어느 종교인이 보증인으로 나서서 풀려났다. 서울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등을 전전한 25년의 감옥 생활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박 선생에게 고생은 출소한 이후가 더 컸던 모양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남한에서 홀로 서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비밀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보부에서 내가 어딜 가나 조사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마련해주지 않더군. 출소한 뒤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어. 먹고 살려면 어쩔겠어.”

이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29세까지 공부하고 군대 생활만 했던 터라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박 선생이 남한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오죽했으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라며 웃는 박 선생의 얼굴이 잠시 그냥 웃는 게 아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3년 제 2차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무슨 말이 없다. 박 선생은 지금쯤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아내와 마흔 살을 훌쩍 넘긴 두 아들을 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유는 남은 인생을 고향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 하나뿐이다. 이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지그시 누르고 박 선생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란 믿음을 가슴 한 편에 담고 있다.

“언제나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어떤 것에 대해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와야지”라고 말하는 박 선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박 선생은 “우리나라도 서로 교류하며 평화적으로 발전해나가야지 우리끼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아”라며 남·북간 민족공조를 잊지 않고 당부한다. 73세 동안 민족의 아픈 역사를 체험한 어르신의 가르침일 게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남한에서 홀로 40여년 이상을 힘겹게 살아온 박 선생, 그리고 아직 남한에 남아 있는 29명의 장기수들의 2차 송환 요구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져 여생을 양심에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솔로몬의 지혜는 추가파병 '재검토'에 있다

-열린우리당이며, 최면에서 깨어나라-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편집자주] 한반도의 평화 통일 군축문제 등을 연구하는 평화운동가이신 정옥식님의 글입니다. 이라크파병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입니다.

평화개혁 세력을 자임하며 지난 4·15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중대한 정세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반전평화'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여당 및 한미관계라는 현실적 고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6대 국회 때 파병 반대를 비롯한 '반전평화'를 주창했던 의원들과 386 및 전대협 출신 초선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이 파병 반대 입장을 철회했거나 결의안 서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그래도 '생각 있는' 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추가파병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거나, 최소한 파병을 통해 상황 악화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뒤집어서 추가파병을 철회하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의원 대다수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적인 '파병 현실론'이다.

둘째,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파병을 철회하면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추가파병의 철회는 한국의 경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파병 철회→한미관계 불안→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고조→경제 불안'이라는 연결고리를 갖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 결코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미국에게 약속한 추가파병을 철회하면, 아무래도 한미관계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관적 현실주의'에 허덕이는 자신들을 보라

그러나 파병과 관련해 상당수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비관적 현실주의에 빠져 정작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동맹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그토록 현실을 강조하면서도 한미관계를 지극히 감상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국이 파병을 철회하면 부시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혹은 어려울 때 부시를 도와주면 우리를 잘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파병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국익을 '감상주의'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먼저 '파병 현실론'의 최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북핵 문제는 파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국의 추가파병이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체면을 살려줌으로써 '재

선 지원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부시의 재선이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인지는 열린우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합리적이고 단호한 해법을 기초로 미국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에 있지, '파병'이라는 편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 9월 윤영관 당시 외무장관이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한국의 파병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했다가 면박을 당한 일을 벌써 잊었던 말인가?

최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보이는 이유 역시, 한국의 추가파병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서 발목이 잡히고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미국 안팎의 압력이 높아진 것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믿었던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고는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권유하고, 대체로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국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성실한 협상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추가파병'이라는 꾀수에 의존해 미국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분명 되새겨야 할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경제문제를 따져보자.

추가파병을 철회하면 한미관계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당달아 외국 투자자도 동요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한미관계와 한국 경제에 정통한 한 미국 전문가는 지난 5월 초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준 바 있다. 그는 국무부 등 미국 정부에서 20년 넘게 경제문제를 다뤄온 베테랑이며

한국이 파병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파병 철회와 경제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심리적 영향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면 경제도 나빠질 수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과 신용평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파병 여부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다.”

또 한 가지. 미국이 갑작스럽게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이라크로 차출하고 주한미군 병력수 3분의 1을 감축한다고 했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A3)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하지 않았는가?

추가파병, '강행과 철회' 이분법에서 벗어나라

물론 미국에게 거듭 약속한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한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노무현 정부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해주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파병 방침을 철회하면 안 그래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한미관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기실 한국 정부의 추가파병 철회 시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어설픈 대미외교'로 인해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일정 정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밝힐 수 없는 속사정”도 바로 여기에 있고,

솔로몬의 지혜는 추가파병 '재검토'에 있다

- 열린우리당이여, 최면에서 깨어나라 -

노무현 정부가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는 것을 기대 하기도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 특히 다수당이자 '평화개혁' 세력을 자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주입시킨 '비관적 현실주의'에서 깨어나고, '파병 강행이나, 철회나'는 이 불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추가파병을 철회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함몰된 나머지, 추가파병을 강행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추가파병의 결정과 실행은 '문제의 끝'이 아니다.

이번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참사가 보여주듯, 그것은 '더 큰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집단적 최면'에 걸려 자기의 존재 이유마저 망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바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딜레마에서 열린우리당 등 국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추가파병의 '강행'도 '철회'도 아닌 '재검토'를 선택하는 것이다. 강행과 철회 모두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재검토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대(對) 이라크 정책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추가파병을 재검토 해야 할 이유들은 넘쳐흐른다. 더구나 이번 김선일씨 참사는 정부와 국회가 추가파병을 강행할 최소한의 준비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국도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추가파병을 재검토하겠다고 결의하

면, 속은 언짢겠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검토를 선택한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이고, 파병을 '철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16대 국회에서 결정했을 때와 상황과 조건이 많이 달라진 현실에서 기존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기꺼이 '반전' 대열에 나서고,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파병한 병력을 철수시키는 선택을 했다. 이들 국가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국익'의 큰 손실을 입을 만큼 해코지를 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열린우리당에게 바라는 것은 이 정도까지도 아니다. 허울로 드러난 '반전'을 선택하라는 것도, 이라크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서회·제마부대를 철수시키라는 것도,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도 아닌, '추가파병 재검토'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속삭인다. 테러에 굴복하는 것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나 열린우리당을 굴복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말뿐인 평화개혁 정신'이자 노무현 정부가 파놓은 '비관적 현실주의'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무지몽매'이다. 집단적 최면에 걸려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더 늦기 전에, 열린우리당이 최면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기회는 있다. 50여명의 서명을 받은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민족대회 참관기

김혜정 간사

인천에서 열린 6·15 4
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에 6월 14일 저녁 만찬 참가
부터 16일 폐막식까지 참가
했다.

모든 행사에 다 참가한 건
아니었지만 1200명으로 이
루어진 남측 대표단의 일원
으로 참가했으니 북녘 동포
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무척 흥분되고 기대되는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행에 있어서 당국의 방해(?)
로 인해 만남의 기쁨을 온
전히 누릴 수 없었던 상황
으로 북녘 손님들에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던 기억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
이켜보면 지금은 그런 기억
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다
만 북녘동포들을 바라보며
설렘었던 마음, 짧지만 많은
느낌을 주었던 만남의 시간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때, 분단이
후 처음으로 TV에서나마였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지켜본 순간의 감동을 어
찌 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사흘 밤낮을 TV에서 신문
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지냈고 이제는 정말 분단의 시
대를 끝장낼 수 있겠구나하는 현실적인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금 세상은 상전벽해처럼 변
해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을 오가며 서로 만나
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방
북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전해
들은 얘기들은 나의 궁금증을 더해만 갖고 드디어 나
에게도 차례가 왔으니 참으로 기뻐다.

사실 대회 참가기를 대회가 끝난 직후 썼다가 지금
다시 쓰고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 쓴 내용이 대회당시
의 불편했던 기억들을 주로 썼었는데 다시 읽어보니
그런 기억들은 어쩌면 사소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
이 들어서다. 만찬이나 점심도시락의 부실함, 행사진

드디어 첫날 만찬 자리에 앉아 북녘손님들을 기다린
다.

북쪽 손님들의 약간 가무잡잡한 얼굴들이 들어온
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손이라도 잡고 부둥켜안고
싶다. 다른 자리에는 손님들이 앉아있는데 우리 테이블엔 안 온다. 어찌된 걸까? 잠시 실망하고 있을 때 비
데오를 들고 기자완장을 찬 분하나가 내 옆으로 온다.
자리에 앉자 인사를 하고 술을 따라 건배를 한다. 말라
버리긴 했지만 생선회한조각을 드시라고 접시에 올려
놓았다. 또 뭐 드릴게 없나 둘러보고 약수도 따라드린
다. 배는 무척 고프는데 밥 생각은 없다.

내 옆에 앉았던 분은 내나라 비디오 촬영가 전천룡
동무이다. 아버지가 비행사였는데 아들도 비행사가
되길 바라셔서 '하늘을 나는 룡이 되어라'라는 뜻으
로 지어주신 이름이란다. 멋지지 않은가. 하늘을 나는
룡이라.. 그는 여섯 살짜리 아이를 둔 아버지이기도
하단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글도
쓰고 한단다. 나에게 '들어와서 글도 남기고 하시라
요.' 한다.

한참, 민족대회



반가운 마음에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다. 생각보다 어감이 부드럽다. 무슨 얘기를 할까 잠시 망설이는 사이 전 천룡 동무가 말을 꺼낸다. “예전에 임수경 학생이 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 처음 한 말이 북쪽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난 사람들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을 그렇게 까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어갔다.

요즘 남쪽에서 문제가 된 이승복 어린이 조작사건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 이성 마비된 채로....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사슬이 아직도 존재한다.

남편의 얘기를 하니 또한 무척 놀란다. 통일운동을 했는데 왜 감옥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

이다. 나는 이렇게 동포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 시간에 내 남편은 감옥에 있다. 순간 기분이 묘해진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아니 나보다는 내 남편이 먼저 와야 할 자리이다. 차분히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밤새 수다 떨고 싶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뿐이다.

서로 다른 자리에 불러갔다 와보니 행사가 끝날 시간이 되었던다. 이렇게 아쉬울데가...

헤어지는 자리에서 천룡동무가 말한다. “다음에 또 만날텐데 다음을 기약합시다”.

맞는 말이다. 이제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

다음날은 체육행사가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병아리색과 옅은 회색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동포들이 나타났다. 내가 있던 통일연대 천막에 오신 동포들은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이 앉아계신 바로 옆에 앉았다. 그렇지만 서로 아는 척도 섞여 앉지도 못하고 올망졸망 앉아있다. 장기수 선생님들도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계실뿐 미동도 안하신다. 고향에서 온 손님들, 가족이 있는 북녘의 소식이 얼마나 그리울까마는 혹시라도 폐가 될까봐 인사도 못하고 앉아계시니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데 나는 궁금해서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다. 자리를 옮겨 동포들 뒤에 가 좀더 가까워서 본다. 머리모양도 보고 얼굴생김도 보고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참 잘생겼다. 자꾸 보다보니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다. 푸근한 아줌마들도 보이고 아직 앓된 맑은 아가씨들도 곳곳하다.

!오|지|심|하|15승|투|하|투|하|

주|하|하|

은 전경들이 먼저 행사장에 와있었고 그 삼엄한 분위기속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들어와 이만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 학생 등 여러 단체들의 깃발도 많이 보였다. 동포들이 행사장에 들어올 땐 모두 일어나 가능한 큰 소리로 '우리는 하나다'와



'조국통일'을 연호하면서 기뻐했다. 1부에서는 남측의 공연이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마치 열린음악회가 연상되는 이것 저것 섞어 하는 공연이 이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내용이 많았다. 왜 하고많은 창 중에 경기민요를 택했으며 하고 많은 가수 중에 마야인지.. 난 행사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공연 중에 신동호 아나운서가 '북한주민들이 최진희씨의 사랑의 미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라고 한 말 중 '북한주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북측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이는 이북을 흡수통일하려는 사고가 전제되어있는 용어라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라. '남한주민들이...' 자! 우리도 이제부터는 이북, 이남의 동포형제로 불러야 한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반갑습니다' 노래를 시작으로 북측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졌다. 이북의 공연은 역시나 멋졌다. 마지막 까지 공연을 관람하고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하며 손님들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이지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마지막 폐막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마라톤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간단한 폐막식을 뒤로하고 행사가 모두 끝났다. 허전한 마음을 잠시 달래다가 '그

래도 지금은 아주 헤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대로 조국을 통일하는 그 날에 이르기 까지 수도 없이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행사를 통해 만나는 것도 좋지만 농사짓는 논에서 기차길 만드는 공사장에서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서로 만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는 건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만나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

"전천룡 동무 우리 다음에 만나면 국가보안법 없이 마음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요." ~~하~~

하루하루 승리 하십시오!

김형주

[편집자주] 김형주님은 10기 한총련의장으로 지난 5월 27일 2년의 징역살이 끝에 출소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따뜻한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조국을 위해 많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출소를 한지 한달여가 되어갑니다. 사실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방 안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면 안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후원회 회원님들과 여러 동지 선배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 순간에도 그 기분은 여전하지요.

탁 트인 하늘을 마주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날짜와 시간을 잘 맞춰야 겨우 볼 수 있었던 둥근 달이 눈앞에 있기에, 이화 편지지에 모나미 볼펜으로 똑꼭 눌러 쓴 편지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로 편지를 쓰기 때문에 출소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웬지 모를 정서적 동질감이랄까요. 뜻 모를 쓸쓸함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참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한달 지났구나’가 아니라 ‘아이고 벌써 한달이나 지나버렸네’라고 느낄 정도니 짐작하시겠지요.

나오기 전에 수없이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은 흐트러질 정도였으니 나와서의 부산함이 상당했지요. 나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거리에 서서 구호도 외쳐보고 얼마 전에 전남 보성으로 농활도 다녀 왔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실제 많은 분들을 만난 이유는 우선 그간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동지들의 바램과 선배들의 조언이 이후 저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 후배들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다시 한번 해보자’는, ‘변함없이 또 가자’는 그 분들이 해주신 말씀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당연히게도 역사의 현장에 동지들과 함께 동참하지 못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팔뚝의 힘은 넘칠 정도로 남아 있는데 내 가슴속 심장은 여전히 펄펄 뛰

를이역사한정원한동행정민통행·호주서

는데 내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창살 붙잡고 울부짖는 것뿐일 때의 참담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죠.

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의 하나인 아스팔트 위를 달려보는 것, 쫓불을 들어 보는 것을 해 봤을 때의 기쁨은 더 말 할 것 없이 컸답니다.

동지들과 민중들과 거리를 달릴 때, 쫓불을 들고 투쟁의 함성을 내 지를 때... 아스팔트에 스민 민중들의 피와 땀이 어느새 내 발끝을 타고 스며 들어와 새 숨결을 불어넣는 듯, 어느 노래 가사 말처럼 투쟁 속에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아, 아직도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투쟁, 투쟁.... 조국과 민족, 민중을 위한 투쟁이 사실 나 자신도 위하는 것이었음을, 이 투쟁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었지요.

2년간의 옥살이동안 나름의 옥중 투쟁을 전개했다고는 하지만 운동이 아직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가 턱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뗏속 깊이 느꼈기에 저 스스로를 다잡고 결심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싶었어요.

그 계기로 삼은 것이 농활이었고 거기에 대학 생활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농활은 가야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던 거지요.

물론 농활은 아주 좋았습니다.

3년만의 농활은 여전히 저에게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안겨주었지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 복무함이 나의 문제로 생존적 문제로 느끼기에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는 저에게 지난 몇일 동안 땀 흘리며 보고 듣고 배운 기억은 앞으로를 살아가는 저에게 많은 각성을 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땀 흘려 일하는 민중들을 잊지 말자’, ‘민중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운동가가 되자’, ‘조국의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자’ 는...

많이 변한 듯한 세상이 결국 그대로임을 아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은 그대로 인데 지금의 저도 변해서는 안되지요.

지난날의 저도 계속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가지지요, 동지들.

마지막으로 옥안에 있는 많은 동지들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하루하루 승리 하십시오. ✎

하루하루 자주와 평화, 민주민권의 해방꽃이 피기를

김광수

[편집자주] 김광수님은 범청학련 사건으로 징역8개월 만기를 채우고 지난 7월 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셨습니다. 출소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조국통일에 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해 봄에는 탄핵반대·민주수호의 촛불로 새 정치의 봄을 일구었다면 지금 여름은 미국의 위협과 공갈, 김선일씨의 살해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그리고 개혁의지가 심히 위협받고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미군의 재배치와 파병이 일관된 체로 미국의 군사동맹, 일방주의에 끌어들이는 것이 명확하고 실제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것으로 예견됨에도, 군비를 증강하고 파병을 강행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기때문입니다.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라도 올 여름에는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활기차게 진행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재판은 지금 끝나고 형이 확정되어 7월 1일 만기가 됩니다. 상고심은 기각되었는데 기각사유는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규정의 유효성, 범청학련이 북의 조종을 받는 이적단체라는 때문은 공안논리, 고무찬양은 미필적 사유만 있어도 위법이라는 것, 국가안보를 위한 표현의 자유 제약 등입니다.

그간 재판과정에서 누차 반시대적이고 비논리적인 북에 대한 규정과 범청학련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과 저희 주장의 합리성을 주장해 왔음에도, 6·15시대

이전에 쌓여있는 판례와 논리로 꽉 채운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인권유린과 강압으로 유지해온 공안논리와 허구적 국익·안보 논리의 재판에 다름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악습과 냉전친미유습을 쓸어내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의 그 어떤 약속도 우리 사회의 요소에 자리잡은 이같은 구세력을 몰아내는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국민적 힘만이 이런 새시대의 요구에 맞는 일들을 성취해 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간의 많은 수고와 관심 그리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건강하고 의미있는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백두한라를 하나로 잇고 이 땅에 자주와 평화, 민주민권의 해방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 6. 26

김 광 수 드림

역사의 발전에는 항상 진통이...

이용준 회원

송두율 선생님께

선생님. 어제가 음력으로 소서였습니다.

구치소의 작은 더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휴가를 내고 서울의 신문로와 세종로, 성공회 성당과 시청 앞의 잔디, 명동성당에서 충무로까지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다소 피곤하여 지치기는 했어도 비오는 날 그래도 여유있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에서는 한동안 앉아 사색을 하다가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저에게 내려진 보석은 요한 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성서를 펼쳐보니 예수님이 체포되기 얼마 전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장문의 기도를 바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 마음 깊이 와 닿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해보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란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옥고를 치르고 죽어간 열사들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반성의 기미 운운하며 15년을 구형한다는 말입니까. 역사는 분명 발전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한참을 퇴보하는 꼴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걸 보면 가끔씩 통일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전은 항상 진통을 겪어야 하듯이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을 한걸음 크게 앞당기게 했다고 믿습니다. 공안검찰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는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은 인천에서 서로 열싸안고 동포의 정을 나누었고 남과 북의 장성이 만나 군함들은 무전으로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교신을 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선전과 선전물을 모두 거두고 있습니다. 개성에는 이남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금강산은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최근의 뉴스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김정일 위원장이 이남을 방문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손잡고 열싸 안으며 한반도의 평화에 쐬기를 박았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날 통일 위하여 투쟁한 우리 민중의 승리요, 민족의 승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선생님처럼 이남의 대북 반공책동에도 아랑곳없이 북을 오가며 남과 북의 학자들의 만남과 교류를 주선했던 분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이남의 대중들이 북을 바라보는 적대적 관점을 바꾸는데도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였을 겁니다.

선생님. 모처럼 찾은 고국은 선생님께 마녀 사냥 식 여론공격과 차가운 구치소만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고국을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옥중에서 투쟁을 전개하시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귀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석방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안에서,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투쟁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전에 한번 안양의 병원에도 왔다 가셨는데 그 때의 병환은 모두 완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날씨 곳은데 선생님의 건강이나 기분 모두 좋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편지드리겠습니다. ✍

나는 간첩인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편집자주] 이 시대의 간첩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는 수구공안검찰의 자의적 판단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국가보안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나는 간첩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나를 간첩이라 판결한 바 있고 지금 또다시 간첩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번이 없는 한 나는 또 다시 간첩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이 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보는 간첩은 무엇인가?

나는 6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 3때는 무작정 Marx에 대해 알고 싶었다. 84년에 대학에 입학해 당시의 학생들처럼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에 참가했다. 여러 차례 연행되었다가 훈방되고 실제 구속되어 형을 살기도 했다. 86년 무렵부터 학생운동권에는 반미와 통일문제가 급부상했다. 80년 광주학살에 미국이 직, 간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비교적 뚜렷했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반미주의자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부터 나는 북의 주체사상이나 통일정책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철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처지가 못 되지만 공안기관은 나를 골수 주사파 쪽으로 분류할 것이다.

나는 북의 통일정책을 상당부분 지지한다. 주한미군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은 88년 이후 지금까지 내가 통일운동을 하면서 유지했던 기본 노선이다. 40살이 된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나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등의 사상과 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간첩이 된 이유일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어

떤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공안기관, 검찰, 재판부가 사람을 판단하는 일차적 징표도 그 사람의 사상이다. 위 기관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아무나 잡아넣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별하여 구속한다. 내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간첩은커녕 연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90년대의 한국은 탈 이념의 시대였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어느 시인은 말했지만 미려스러운 어느 30대는 끝나지 않은 변혁과 통일을 위해 공장과 농촌, 거리에서 30대를 보냈다. 내가 선택한 곳은 범민련이었다. 이적단체의 표본쯤으로 간주되는 이 조직의 특징은 조국통일에 뜻이 있으면 남북해의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범민련이 북의 조종을 받는 단체라고 규정하지만 통일운동의 입장에서 북한 동포와 대화, 접촉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조종이나 받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남북관계의 독점권은 정부에게만 있어야 했다. 남북을 연결하는 정부이외의 또 다른 선이 있다는 것은 정부로써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단의 영역에 도전한 결과는 가혹했다. 범민련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제 집 드나들 듯 감옥을 오갔다. 정부는 어느 순간부터 범민련 사건을 이적단체 수준을 넘어 간첩혐의와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나는 97년 6. 20 연행되어 98년 4월 항소심에서 간첩 판결을 받았다. 나는 순진하게도 간첩하면 북에서 남파된 대남 공작원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알았다. 그런데 묘한 것은 북에서 남파된 오리지널 간첩은 몇 명 없거나 아예

감옥에 오지 않는다. 90년대 후반 발생한 간첩사건의 대부분은 나처럼 북한과 적당히 연관된 사이비 간첩이다.

99년 8월 나는 2년 4개월의 징역을 살고 다시 범민련에 가담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서로 만나기를 바랐다. 남북을 중계하는 일이야 범민련의 특기이자 본성이므로 우리는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일본의 범민련 조직을 통해 범민련 북측조직과 200번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민, 노동자, 재야 운동가들이 북을 방문하고 북의 동포들이 남을 방문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한번도 북에 가보지 못했고 북한 사람을 만나본 일도 없다. 범민련이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모든 남북행사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나는 2003.12.1 또 다시 연행되어 2004. 5.24 1심 재판에서 간첩이라고 판결 받았다. 2심, 대법원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징은 검찰이 기소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 난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를 판사가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간첩인가?

내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해서 간첩인가? 그러면 당신의 주장은 무엇인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의 사상은 무엇인가?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마르크스를 알았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반미주의자였으며 40이 된 지금까지 그렇다. 이 땅의 이른바 386이 비슷한 과정을 밟았고 개종의 상당수는 아직도 거리와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나는 간첩인가? 나는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내 사상의 출처는 고난의 길을 헤쳐 온 80년대 학생운동이고 그런 사상을 배태시킨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만행이며, 90년대 투쟁의 길을 선택한 전투적인

386의 일원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조국은 남북 모두가 함께하는 7천만 모두의 조국이다. 이 발상과 생각이 당신과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간첩으로 몰지 말라.

나는 북한과 직접 연계를 시도했던 범민련의 일원이다. 우리는 남북이 실제로 함께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우리는 민족자주와 단결의 차원에서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비밀리에 관철할 마음은 없었다. 우리는 서울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공개적으로 북과 접촉하고 협력하고자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북한동포와의 접촉과 만남은 정부만 해야 하는가? 북한동포와 만날 때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하는가? 북한 동포와 만날 때 노동자와 농민은 자제해야 하는가? 당신이 주장하는 남북간 만남은 이산가족끼리 또는 교양있는 사람들만이 이른바 “순수하게”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식의 만남에 반대한다. 그리고 만남이 계속될 때마다 남북의 만남이 깊어지길 바란다. 어제 만남이 함께 공을 차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내일은 미국의 만행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합치기를 바란다. 어제 지식인과 종교인이 만났으면 오늘은 노동자와 농민이, 내일은 국민 모두가 만나기를 바란다. 무엇이 간첩인가? 정부의 허락 없이 북과 연락한 것이 간첩인가? 남북간의 만남을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가 간첩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남북의 만남은 무엇인가? 공을 차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동포애를 나눈 후 당신이 북한당국, 주민과 진정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민족 자주를 위해 함께 싸우고 싶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간첩이 된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다툼의 씨앗을 버려라!

오영순 편집위원

우리 아이는 여덟 살 사내아이다. 혜화동 성당에서 꾸리는 혜화 유치원을 3년 동안 잘 다녔다. 우리 아이는 아마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잘 적응할 것 같다.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 교육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려는 것일까?

나는 우리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크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 사회의 한 부속물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일반 학교 교육은 갈수록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회-사람뿐 아니라 자연 전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준다. 초등학교부터 입시 교육의 시작이다.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는 나이에 학원을 서너 개씩 다니며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둥바둥 하게 된다. 이런 제도 교육은 대학가서도 마찬가지다. 취업의 문이 좁아 끝없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일 자리를 구해도 마음 편하게 살 수는 없다.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한다.

이런 자본의 굴레에 내 아이를 맡길 수는 없다. 나는 올해로 마흔 살이다. 내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을 그대로 아이에게 물려 줄 수는 없다. 조금 험뻏고 배고프게 살더라도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은종복님 쓴 글 중에서)

일요일 오후! 성대 앞에 자리한 풀무질 서점을 찾았다. 긴박하게 잡은 취재 일정에 오히려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은종복님의 전화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던지

라 은종복님을 찾아 나선 필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어제 평택에서 열린 “반전평화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당일 올라와 세시간 밖에 취침하지 못했다는 은종복님에게서 피곤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다. 새벽 다섯시 경 기상하여 ‘요가’로 가벼운 몸 풀기를 한 다음, 아침밥을 손수지어 가족들에게 밥상을 올린다는 은종복님.

행복한 가정의 단란함이 한눈에 그려지는 듯 하다.

1993년 4월 1일 풀무질 서점을 선배로부터 인수하여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라! 설날과 한가위를 빼고는 단 하루도 책 방문을 단지 않았다고 한다. 1997년 봄, 김영삼 정권 말기에 불어 닥친 공안바람의 첫 희생양이 되어 인문과학 서적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 이적 표현물 판매 죄로 은종복님도 희생양이 되었었다. 한달 여 만에 풀려나긴 했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장면임에는 다름없다.

90년대 중반까지 서울에 남아 있던 열 대여섯개의 인문사회과학 책방이 거의 문을 닫게 된 현실에서 풀무질 서점 또한 매출액 상당부분이 “인문사회과학”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한 특별한 무언가가 그곳엔 있었다. 취재 도중 내내 심심치 않게 드나드는 청년들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비좁은 책방에서 일대일로 손님들을 마주하며, 진보성향을 갖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은종복님이 손수 쓴 책자 ‘작은 선물’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것하

평화문의 은종복장부

나눔은 희망

며, 무엇 하나라도 내 안에 있는 걸 나눠주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순수하기에 오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와 ‘미소’를 짓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마음에서 평화의 씨앗을 찾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평화의 마음을 다지고, 더 작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툼의 씨앗을 버려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믿는 은종복님의 철학은 ‘풀무질’ 바로 그곳에서부터 작지만, 소리 없이 또한 변함없이 서점을 찾는 이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필자 또한 은종복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빠져, 장시간 취재에 지치는커녕 흘러버린 시간개념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십여년을 책방에서 가족(아버지, 둘째형)과 지켜내며 함께 하면서, 작은 실천이라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큰 뜻으로 다가가고 있는 은종복님의 얼굴에서는 주름살이 아닌 “환한” 웃음만 자아내고 있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을 엿보았다 하면 과연 사람들은 뭐라 할까? 마흔살에 찾아보기 힘든 은종복님만의 독특한 매력이 무엇인지 취재가 끝나고 나서야 어렵פות이 알 수 있었지만, 분명 필자는 모든 걸 가늠하진 못했을 게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다툼의 씨앗을 매일 기도하며, 사람이 지닌 욕망을 저버리며, 옹골게 사는데 열정을 다하며 사는 그 무언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마! 그 속엔 지혜로우시다는 사모님과 논리적이라는 아들이 그 힘을 더해 한층 큰 빛이 되게 하였을 것이다.

은종복님이 쓴 글 중에서 “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좋다.” 그냥 북한산 자락에서 사는 온갖 살아있는 것들과 부대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산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 라는 말이 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주저 없이 아이를 제도교육에 맡기지 않고, “대안교육”에 맡긴 부부의 용기가 부럽다. 미약하지만 알면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필자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풀무질에서 배여 나오는 훈훈함과 책 한권의 선물은 바쁜 일상 속에 지친 필자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냈다.

어느 날 문득, 성대 앞에 자리한 풀무질 서점을 우연히라도 지나신다면 꼭 들러 보시라! 그냥 궁금증을 풀어 헤치는 대화를 나누다 나오는 것도 좋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책 한권을 선정해 달라고 해도 좋고, 어떤 경우이든 마음속에 훈훈함이 느껴질 것이다.

[편집자주]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에는 아주 오래된 사회과학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풀무질 서점의 은종복님은 지난 해 양심수후원회에서 모범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메아리를 갖는 뜻을 전파하시는 은종복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음속 부활하소서 의 씨앗을 버려라!



고 김선일 씨여
이제 편히 쉬소서

자주평화의 아침햇살에
영롱히 빛나는 이슬방울로
어머니 대지에 스미어지리니,

굴종과 침략의 오욕을 지워버릴
민들레 홀씨되어
어머니 대지를 뒤덮으리니,

고 김선일 씨여
이제 그렇게,
그렇게 찬연히 부활하리니

편히 쉬소서
그리고 지켜보소서

그대 이슬방울로,
민들레 홀씨로,
부활하는 자주평화의 조국 땅에 부활하리니!

그러니 이제 그대
지친 영혼 아픈 육신
편히 쉬소서
부디,
부디 그리하소서

[편집자주] 김선일씨의 죽음을 몰고온 이라크 파병문제로 한반도가 들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병철회의 목소리는 너무도 작습니다.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시를 실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추모와 파병철회의 결의를 새겨봅시다.

광화문의 촛불현장

나경운 회원

[편집자주]나경운 회원님은 해방전후에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일하시다가 십 수년 간을 옥고를 치르고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나순석, 나순철회원과 함께 양심수후원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고 김선일씨의 추모 촛불시위장에 우리 모두 광화문 현장으로 모였다. 촛불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의롭고도 뜨거운 혼불이다. 우리는 뜨거운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전쟁 침략자들의 총알받이로 우리의 귀중한 청년들을 이라크 침략전쟁의 희생자로 파병시키겠다는 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 미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은 끝도 없는 전쟁이며 명분없는 전쟁임에도 강압적으로 다른 나라의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침략의 본성을 온 천하에 또다시 드러내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부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자국의 민중들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협조국들은 자국과 자국민을 향한 테러에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식민지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평화를 갈구하던 나라이다.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고통을 몸소 겪은 민족으로서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음에도 명분 없는 전쟁에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파병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평화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파병에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 통일에 매진할 때이다. 남북의 민족끼리 지난 세월의 상처를 씻고, 용서하고 우리 대에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수도 서울의 한 복판인 광화문에서 우리민족의 원한을 촛불에 담아 우리의 서러운 함성을 저 미국 침략전쟁의 당사자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의도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할 것이다. 파병을 한다면 우

리 청년들이 이라크에서 피 흘릴 것이 뻔하다. 우리는 촛불과 함성으로 우리 청년들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단결하고 힘을 합치면 이라크 파병을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들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근성과 의존성을 버리지 못하고 퇴로의 명분을 찾을 수 없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애원하듯 매달리는 모습은 측은할 정도이다. 고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역사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생명은 소중하다. 귀한 생명을 뜻있게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은 열심히 살고자 했던 고 김선일씨를 죽게 한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 우리 민족이 바라는 국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할 당시와 지금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중이 바라는 일들을 대범하고 확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남 땅의 미국군을 내보내는 투쟁에도 매진해야 한다. 미국은 어떻게든 남북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갖은 술책을 부리고 있다. 6자회담에서도 가장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미국이다. 온 세계를 화약고로 만들어 그들의 지배야욕을 실현시키려는 미국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계기로 남과 북은 더욱 만나고 교류하여 통일을 물꼬를 트고, 모든 민중이 힘을 합쳐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 김선일씨의 죽음에 삼가명복을 빌며, 우리 아들, 딸들이 이라크에서 맞을 죽음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미국의 침략전쟁을 촛불로 뭉친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그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온전히 몸담은 사람

임미영 회원

며칠째 집에서 나갈 때마다 잔뜩 흐린 하늘을 보고
혹시나 하고 우산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 다녔지만 결코 우산을 펴들지 못했다. 오늘도 망설임이
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산을 챙겨 들고 박미옥님과
약속 장소인 연남동으로 갔다. 차일피일 하다가 하루
전에야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몹시 바쁜 중에도 기
꺼이 시간을 내어 주셨다. 지난 번 총회에서, 또 소식
지 발송 작업을 하는 날 낙성대에서 운영위원모임 때
문에 와서 소식을 열심히 봉투에 넣던 모습을 기억
하고 있었던 터라 사무실 근처의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는 박미옥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기왕에 점심시간이라 인근의
수제비 집으로 가서 큼직한 낙지로 시원한 국물을 낸
수제비를 먹고(죄송하게도 밥값은 기어이 선생님이
치렀다.) 근처에 있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딱히
인터뷰의 형식을 취할 틈도 없이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송두율교수님 이야기로부터 부인의
고통을 본인의 무게만큼 같이 껴안아줄 수 없는 안타
까움을 토로하다가 내가 박미옥님과 비슷한 연배인
것을 알고는 결혼이며 아이들 이야기며 박미옥님의
살아온 행적을 편하게 말해주셨다.

맑은 얼굴 모습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느낌이었는데
웬걸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엄
마라고 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용
감하게 두 아이를 낳고 더군다나 마흔이 넘어서야 낳
은 둘째 딸 덕분에 십년이나 젊은 엄마로 살게 되는 영
광을 누리고 있었다.

별로 한 일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고 하셨지만 군사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 시대의 고통을 몸소 껴안고 사

신 일이며 여전히 그러한 투철한 사회의식 속에서 늦
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도 직장생활과 살아
온 행적에 걸맞는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다. 아마도 여
전히 완성에 이르지 못한 채 퇴행의 조짐 속에 빠져있
는 현실에 대해 가슴 깊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
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박미옥님은 남해의 군항 진해에서 태어났다. 비교
적 안정된 집안 환경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해 초등학
교를 마치고 곧바로 서울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였
다. 부모님도 자신도 의대를 가기를 원했지만 공부를
좀 게을리 한 탓에 생각지도 않은 불문과에 입학했는
데 그 이유가 마지막 시험에서 불어 점수를 아주 잘 받
았기 때문이란단.

75년도 박정희 정권 아래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문
제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청계야학을 시
작했다. 그 당시는 학교 서클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활동이 수월한 교회를 활용하여 야학
을 만들어 대부분 도시 빈민노동자였던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또 자연스레 의식화 학습도 할 수 있
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인 김부섭님도 만
났다. 70년 대 후반 독재 타도에 앞장선 학생들의 운
동이 최고조에 달하자 박정희는 학원 탄압을 위해 지
도 휴학제라는 학칙을 만들어 학생들을 강제 휴학하
게 하였다. 선생님도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반독재
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어 79년 남민전에 가입하
였다.

유신 시기의 최대 규모의 공안 사건이었던 남민전
사건은 민족자주해방 반외세민족자주 반파쇼민주화
라는 기치아래 이남의 모든 계층의 민주투사들을 결
집케 하였던 자주민족민주화 운동의 큰 틀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이어 구속생활을 하다가 80년 5월 광주항

쟁이 일어나기 보름 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남민전 사건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운동권에서조차 레드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던 사건이라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미옥님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통일 운동가였던 문익환 목사님이었다.

문익환 목사님은 자주 민주 통일이 일체임을 천명하여 1989년 직접 평양을 방문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김일성주석과 두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통일3단계방안원칙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에의 열정으로 생을 다하신 분이다. 문목사님의 통일 운동에 깊이 공감하여 그저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온전히 몸담은 사람으로서 한시도 그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박미옥님이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것은 단순히 권오헌회장님의 권고가 아닌 보다 소중한 인연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남민전 사건의 주체였던 권오헌회장님과의 남다른 인연도 고려하려니와 또한 박미옥님과 남편 김부섭님은 자신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커다란 위안이 되었던 민가협에 항상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후 부부가 경제활동을 시작하자 그것으로 후원회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고 실제로 후원회의 훌륭한 후원자이시기도 하다.

남편 김부섭님은 91년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래머로서 민족기술의 자리매김에 일조하고 계신다. 박미옥님은 두 딸을 낳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실천 가능한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공교육 활성화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운영위에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민주화가 저변화 되어가고 있다고는 하나 절차적인 문제에서 기존 세력들과 끊임없이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요소요소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씨앗은 뿌려져 있으며 그것

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식의 상승과 함께 여타 조건이 갖춰져가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학교 운영자에게 권한이 쏠려있던 전형적 구조를 차단하고 비민주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기본 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교조와 함께 하고 있다.

박미옥님의 소신이 그러할진대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전인교육에 힘쓰고 아이들을 비인간적 사교육의 현장으로 내몰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이 꽤나 부러워하는 엄마가 되신다고. 또 아이들이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았는지 일찌감치 체크해바라를 좋아해서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두 아이 중 누구라도 의사가 되어 참된 의술을 펼치면 하고 내심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해서 총리인준을 앞둔 이해찬 의원의 국보법 철폐 발언에 대한 전망을 물었더니 이 의원의 국보법철폐와 파병지지라는소신과 맞물린 제도권 정치인들의 이율배반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정치풍토는 자신의 세계관을 지키기가 힘이 들고 (그런 이유로 남편조차 그런 속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믿어서 남편의 정치활동을 반대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론든 자신의 세계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 정권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미옥님은 지난 총선 때 민노당의 전략상품인 “각계 지지선언”에 참여해서 민노당 지지 선언을 했다. 많은 문인들 화가와 영화인 예술인들이 이 선언에 참여했는데 기존 정당에 신물을 느낀 국민들의 표를 결집해 오랜 시간 끝에 처음으로 민노당을 국회로 보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출간하는 당대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즈음에는 어느 책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사회과학에 관한 책이 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나마 한정된 독자들이 주로 386세대들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의 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질성에 기인하여 자신이 의도하지 않

아도 자신도 모르게 사회 현상에 대한 학습의 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부분 진보서적을 출간했는데 송두율교수의 “역사는 끝났는가”와 역서인 “빈곤의 세계화”는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지금은 생태계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으로서 후원회의 발전을 위해 무얼 고심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다. 양심수후원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관심유발을 위하여 후원금을 적극적으로 내야 하는데 그럴려면 회원들의 자발성만을 기대하지 말고 프로의식을 발휘해서 후원회원의 기여도를 격려하고 잠재된 활동성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정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배가 운동도 해볼만하다고 귀뜸 해주신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4시가 가까운 것을 알고는 서둘러 이야기를 접었다. 아쉬운 대로 다음에 좋은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도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를 남기고 헤어졌다. 헤어져서 연남동 주택가를 벗어나 홍대 지하철역에 이르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몹시 더웠다. 학생들이 파병반대에 관한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건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유인물을 읽을 생각도 없이 계단 아래 쌓아두었다. 유인물 속에서 김선일이라는 이름이 무수히 버려져 있었다. 나는 가방 속의 우산을 생각하며 시원하게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알립니다

7월 시사강좌

일시 7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낙성대 만남의 집
강사 홍세화
제목 홍세화의 세상 읽기

9월 시사강좌

일시 9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 낙성대 만남의 집
강사 강정구 교수(예정)
제목 2004년 한반도 정세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 평가

감사합니다

후원회원 모임인 '매오로시'에서 모은 돈으로 낙성대 만남의 집 문패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남의 집 찾기가 훨씬 수월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룡천참사 동포돕기 모금운동

룡천참사 동포돕기 모금운동은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159-10-001411 권오현양심수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와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무죄석방을 위한 문화제

‘오작교의 꿈’

일시 8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서강대 메리홀

한홍구 교수님의 시사강좌 듣고 나서

김혜순 회원

2004년 양심수 후원회 첫 시사강좌가 6월 13일에 있었으니 강의를 들은 지도 벌써 한달 여가 되어간다. 강의 노트도 없고 메모도 열심히 하지 않았던 터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때의 느낌이 잘 전달될지는 자신이 없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 첫 느낌은 '한교수님 강의 재밌게 참 잘하신다.' 하는 거였다. 2년여 동안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해주신 한상권 교수님의 강의가 지금 우리 민족문제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다분히 이론적인 강의였다면 올해 새로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의 강의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을 관통하는 실천과 경험 이야기가 뒷받침된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 그 자체였다.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차출한다는 미군철수에 관한 이야기부터 새롭게 재편되는 한미동맹의 문제점, 군축의 문제 속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바라보도록 큰 시각을 제시해주셨다.

한참 논의가 진행되었던 주한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는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해외원정군의 중추기지가 되는 풀이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한참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겨냥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만약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량이 가장 많은 우리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력으로 보아서 절대 남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한국군의 국방예산이 북한의 전체 예산보다 많다는 한 가지 예로 들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60만이라는 군인의 숫자도 걱정하지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 우리 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군대문화도 하나씩 되짚어 주셨다.

결국은 군사력으로 대결해갈 게 아닐라 우리 민족이 서로 군축을 논의하고 민족공조로 평화체제를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군축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양심적인 병역거부 문제도 결가지로 풀릴 수 있다는 거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핵심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신앙과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강의를 마감하면서 권오현 회장님의 양심수 규정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실천하다가 구속된 양심수와 장기수 선생님들의 문제로 한정되었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 거부도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계셨다.

모처럼 단국대 법사학회 학생들이 참여하여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여 모은 후원회를 전달식도 하였다. 강의가 끝나고 오감시롱 회장이 준비해온 떡과 강의시간 내내 부침개를 준비한 간사의 봉사로 맛있는 막걸리와 함께 뒷풀이도 진행되었고 늘 빠질 수 없는 사진 찍기 행사도 했다.

이번 강의는 낙성대 선생님 등 10 여분의 선생님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더 많은 회원들이 듣지 못해서 죄송하고 아쉽고 그랬다. 2차에 진행되는 흥세화 선생님의 세상읽기는 앓을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벌여놓은 잔치에 후원회원들의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는 등 집행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었으면 한다. ♣

하루의 행복!

박상렬 회원

[편집자주]박상렬 송금숙 회원님께서 부부회원이십니다. 송금숙님의 조카가 한혈을 한후 불상사를 당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였습니니다. 기운내시고 행복한 가정 일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족은 내세우거나 보여줄게 없는 가족입니다. 늘 일상의 지침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울고 웃는 부족한 가족입니다. 움시롱 감시롱의 인연으로 양심수 후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어렵פות이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 이천은 낭만이 있었습니다. 구부렁한 논두렁에 논물도 대고 아카시아 꽃 따 먹으며 도랑물을 지켰지요. 여름이면 개울가에 새알을 찾으며 깨끗한 논 모래에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가을엔 고추잡자리 잡으며 잘 여든 옥수수대를 먹곤 하였습니다. 겨울엔 눈도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최규하 대통령상을 세 번이나 탄 어머니 밑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세월이 흘러 평범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있습니다. 6학년 막내 딸 시연이는 요즘 로봇 만들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고 이번 주에는 싸움하는 베틀로봇을 만든다나요? 중1 남수는 서울에 있는 삼육 중학교에 유학중인데 어린 나이에 부모 떨어져 의적이 생활하는 아들이 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제일 예쁜 아내는 조카의 억울한 죽음 이후 남수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육중학교는 토요일 수업이 없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이면 남수를 보러 가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어린아이 소풍가듯 기분이 들뜨곤 합니다. 하루의 행복입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주중의 하루죠!

'산수사랑 왕수학 보습학원과 애반무어스쿨 영어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사 교육현장에서 배우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그대로를 행하는 순수함 속에서 우리들의 미래에 희망을 갖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아이들은 놀라우리만큼 그들의 부모와 닮아 있습니다. 생김은 물론이려니와 부모들의 어투와 품성이 너무나 일치함에 기성세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는 합니다.

사교육의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의 중요성은 남다른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체계가 요즘같이 자주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교육 행정이 바로 섰을 때 가정도 사회도 미래도 더욱 밝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움시롱 감시롱과의 인연은 우리 삶과는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인연은 제 인생의 사춘기 같은 변화였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민족과 조국애라는 새로운 각도의 시각도 생기고 국토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을 한 뜻으로 살아오신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들과의 그 인연이 우리 가족에게는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족의 소중함과 시간의 두려움, 인연의 삶을 생각하며 소중한 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세상과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봉화에 오기까지 3

차정원 회원

생태적인 삶에 눈을 뜨게 한 책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음을 연 만남과 자발적 배움이다. 나는 운이 좋게도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좋은 책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 내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 고마운 책들을 소개한다. 봉화에 오기 전에 읽은 것도 있고 오고 나서 읽은 책도 있다.

-격월간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과 이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부합하는 비폭력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일은 사회적 분열과 생태계의 파손이 극에 달한 오늘날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녹색평론> 구독자 모집광고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귀농 희망자들이 흠에 뿌리내리고 건강한 귀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태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귀농학교는 생태적 가치와 올바른 삶을 공유하고, 주체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농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귀농통문>에 소개된 생태귀농학교

귀농자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격월간지의 소개글이다. 이 잡지들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내게 주었다. 또 <월든>과 같은 소로우의 작품과 시튼의 동물과



2000년 겨울 단양 집 앞에서

인디언 이야기, 류시화 시인의 인도 기행기와 번역서들, 티날한 스님의 책, 불교와 관련된 다양하고 아름다운 책과 <예수는 없다>와 같은 종교에 대한 근본적 사고를 일깨우는 책, <명상길라잡이>, 아바타를 소개한 책들, <식물의 정신세계>, 빅터사우버거의 <살아있는 에너지>, 생태적인 집 짓기를 소개한 책과 인도의 간디사상을 정리한 책,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같은 책들은 봉화에 오기까지 나의 인생관,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책 외에 특히 <오래된 미래>나 스코트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의 책, 달라이 라마의 책, 정농회에서 나온 <21세기의 모델-쿠바의 유기농업>과 같은 책은 나를 생태, 평화, 귀농, 명상, 공동체와 같은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요즘은 우리나라 귀농인들이 쓴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굳이 외국사람의 책이 아니더라도 생생한 귀농이야기를 접할 수 있고 대중매체에 자주 소개가 되어 누구나 쉽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책들은 동양사상 특히 노자, 장자와 불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았다. 그리고 신과학과 관련된 책들도 있었는데 이런 책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쉽게 읽을 수가 없었고 나는 주로 대중적인 책들을 읽었다. 이런 책들과의 만남과 의문이 날 때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귀농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내가 방문한 괴산에 살고 있는 부부는 전기와 수도도 놓지 않고 촛불로 어둠을 쫓고 손빨래를 하고 군불을 때며 생활하고 초가집을 직접 아들과 짓고 가구도 만들어 썼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도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스스로 몸을 돌보고 농사를 지으며 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대산업 소비문명과 완전히 반대방향의 삶이다. 남편과 나의 관계도 무척 원만해졌다.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교사는 괴로워

그 해 나는 학교에서 5학년 담임에 연구와 특기적성(수업 이외의 행정업무가 많음)을 맡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름방학을 며칠 앞두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병까지 생겨 휴가를 내어 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서로 다른 개성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으로서 학교는 좋아했지만 교육기관으로서는 학교가 싫었다. 학교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경쟁시키고 함부로 인격을 무시한다. 아이들이 전체 속에 적응된 부품과 같이 획일적이기를 바란다. 교사는 이러한 학교 내의 하급관리로서 위치하며 항상 지시와 보고, 전시성 행사에 시달리며 수업을 해야 한다. 나는 충실한 하급관리의 역할을 해내다 지쳤다.

수업 중에도 수시로 인터폰을 해대는 교감의 공문독촉, 교육과정 편집 인쇄, 장학지도 준비와 진행, 군 지정 시범학교 결과물 보고서 작성, 시범수업, 특기적성 수업(민속장구반), 잦은 출장에 시달려 피곤함 속에 아이들을 만났다. 그래도 교육청과 교장, 교감은 뭔가 그럴듯하고 멋진 포장과 상장을 원한다. 그 장단에 맞추어서 이것 저것 하다보면 일년간의 수업은 방향을 잃어버린다. 나는 아이들에게 무능하고 게으른 교사

였다.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만 두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남편은 일은 많이 했지만 돈이 안되었다. 6,000평 고추농사를 짓고 나서 남편은 아예 계산도 하지 않았지만 들어간 영농비나 고추 판 돈이나 그게 그거 아니면 손해였다. 또 영농조합은 연말에 결산하기까지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 아직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직장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해 '소백산 영농조합'의 잡곡이 히트를 쳤다. 연말이 되자 남편은 3,000만원을 벌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처음 출자한 돈이 300만원이었는데 10배의 이익을 올린 것이다.(다음 해부터는 이런 일은 없었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 이 행운의 돈은 공동체를 하기 위해 쓰여졌다.

자급자족적인 소농공동체를 꿈꾸며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식어가는 가을 남편은 귀농을 하려는 3가족과 공동체를 구상하였다. 남편은 '자급자족적인 소농공동체'를 만들자고 하였다. 이제 대규모 농사도, 바쁘고 지향없는 영농조합도 아닌 소농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생산물을 가공해서 팔면서 이전보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2,000만원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땅을 사서 협력하여 집을 짓고 수익사업도 함께 해나가며 서로 돕고 살자는데 모두 동의했다. 우리는 '작은영농조합'을 만들었다.

겨울이 되기까지 우리는 모임을 계속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토론하고 서로를 알아갔다. 사실 만난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예전에 학생운동이건 야학이건 노동운동이건 이런 저런 비슷한 경험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하였다.

몇 달 동안 땅을 보러 다니던 남편과 사람들은 드디어 경상북도 봉화에 땅을 사기로 하였다. 모두 좋다고 하니 나는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그 곳에 갈 것을 동의하게 되었다. 우리는 12월에 땅을 샀다. '작은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2001년 신청연휴때 정동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했다. 집은 팔기로 하고 이미 내놓았는데 임자가 나서지 않았고 아랫집에 살고 있는 후배는 떠날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후배에게 집을 사지 않겠는가 제안을 했다. 후배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음에 쏙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 집에 쏟은 땀과 정성, 애정을 나는 쉽게 지울 수 없었다.

다음 해는 다니던 학교에서 집과 가까운 학교로 발령이 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명지와 나는 학교를 함께 다니면 되지만 네 살박이 둘째가 문제였다. 남편은 둘째를 데리고 다니면서 봉화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땅을 사놓고 집은 팔았는데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봉화까지 아이를 태우고 위험하게 왔다갔다하며 일을 한다고 하고, 생활비는 배가들 것이고 온 식구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얼굴을 할테고... 정말 더 이상 그렇게 시달리며 살기 싫었다.

1년 정도는 좀더 돈을 벌어서 봉화에 갈 생각을 하던 나는 고민 끝에 신청 쯤 되어 별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학교를 그만 두기로 결심했다. 4년 5개월동안 다니던 학교생활, 연좌죄로 발령이 나지 않아 법정투쟁까지 하여 간신히 얻게된 직장이었었는데, 학교와 관련해 단양에서 맺은 사람들과의 인연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뒤로 하고 나는 떠나기로 했다.

아쉬운 마음도 컸지만 학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빚은 없었지만 가진 돈이 많지 않았다. 2월 월급과 퇴직금, 작년에 남편이 판 고추절임대금이 전부였다. 절약해서 써도 1

년 반 쯤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단양에 집도 짓고 직장도 잘 다녔고 터도 열심히 닦아 살기 좋아졌는데 왜 갑자기 그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외딴 산골로 간단 말인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셨다. 학교동료들도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내게 반지를 만들어주었다. 가평 초등학교의 G자를 새긴 예쁜 반지였다.

봉화 산골마을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이제 이 곳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다. 우리는 마을에 빈 집을 알아보았다. 마침 알맞은 집이 있어 도배와 장판, 보일러를 새로 하고 2월 봄방학이 시작되자 사직서를 처리하고 이사를 하였다. 옷과 책, 주방살림 등 꼭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가구는 단양집에 맡겨두었다.

이사한 집은 주인이 2년 전 쯤 빚을 지고 야반 도주해서 가구나 살림도구 등이 그대로 있는 것이 많았다.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나니 그런대로 살만했다. 이 집에서는 연탄을 때고 살게 되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었다. 연탄을 갈 때나 화장실을 갔다올 때면 나는 다시 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명지아빠, 텔레비전 틀면 전두환이 다시 나올 것 같아."

나는 재미있어하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환경의 변화들이 오히려 즐거웠다.

명지는 춘양초등학교로 전학을 하고 나는 집에서 둘째를 돌보면서 식구들 밥을 하였다. 줄지에 전업주부가 된 것이다.

3, 4월은 학교에 출근을 안하는 것이 좋았다. 느긋하게 쉬면서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나물도 뜯고 김치도 하고 낮잠도 자고 회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명지가 학교 끝나고 오는 걸 마중나갔다. 남편은 트럭을 타고 우리가 산 땅에 가서 일을 했다. 길도 닦고 물통도 묻고 닭장도 짓고 생태적인 뒷간도 만들고 사과 저장

고(원래 사과 과수원을 하던 땅이었다.)도 치우고, 우리 4식구는 무척 평화롭고 행복했다. 저녁이면 밥을 먹고 치우고 나서 한 방에 누워 웃고 떠들다가 잠이 들었다. 내 핸드폰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산골이라 터지지도 않았지만 이제 내게 전화를 다급하게 걸 사람도 없었다. 나는 소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다. 생활비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가게부를 적기 시작했다.

공과금과 식비, 자동차 유지비, 책값, 담배값, 경조사비등 적게 쓸 때는 40만원, 많이 쓸때는 100만원 이상이 들었다. 나는 우리 차를 팔자고 했다. 단양에서 내가 출퇴근할 때, 남편이 일하러 다닐 때, 놀러갈 때

타고 다니던 정든 스포티지는 산 지는 2년이 좀 넘었지만 무척 남아있었다. 더구나 내가 초보운전자로 큰 사고를 두 번이나 내서 보험금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이 곳에 교통이 좋지 못하다고 좀더 두고 보자고 했다. 나는 공동체에서 함께 산 트럭을 필요할 때는 쓰면 된다고 했지만 그 트럭도 남아서 장거리는 좀 무리였다. 차를 팔아야만 생활비가 줄어든 것 같았지만 당분간은 놔 두기로 했다.

우리는 그 차를 타고 주변에 있는 영주 부석사나 안동, 동해안에도 가끔 놀러갔다. 도시락을 싸서. 나는 무척 행복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3,4월이 그렇게 지나갔다. ~~하~~



알립니다

7월의 특별한 산행 : 백운산과 광교산

7월 후원회 산행은 백운산과 광교산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산행은 한양대 88학번 탈출패 출신들의 모임이며 오래도록 후원회의 회원모임이기도 한 여든여덟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든여덟의 박철민과 전주리 그리고 같이 사는 서미영 이동현이 멋진 뒷풀이를 준비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호응 바랍니다.

▶일시 7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모이는 곳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

10시까지 모여서 함께 마을버스를 탑니다.

마을 버스는 매시 5분 35분에 있어요.

마을 버스 번호는 없고 그냥 고천행입니다.

백운저수지 지나 삼거리에서 내려 왼쪽으로 좀 걸어가면 등산로 표지판이 나옵니다.

답사해본 결과 시간은 마을버스 내려서 부터 3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1시간 밥 먹으면 4시간 걸리겠죠.

처음 백운산 정상까지가 좀 가파르지만 그 이후는 전부 능선입니다. 백운산 정상까지 한시간, 그다음 광교산 정상까지 1시간, 또 그 다음 목적지 까지 1시간 걸립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양재역, 강남역 방향 : 1550번 좌석버스(10분 간격)

광화문, 시청 방향 : 5500번 등

인덕원, 사당동 방향 : 1550-3번(25분 간격)

▶기타

- 비가 와도 산에 갑니다
- 그 날 박철민네 집에서 자고 가도 됩니다
- 텐트 치고 자도 됩니다
- 심어 놓은 야채 : 배추 감자 옥수수 고구마 오이 참외 고추 호박 쫄면 토마토 등
- 회원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광기와 야만의 전쟁은 끝나야합니다



▶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01 명동 우리은행 네거리에서 통일연대 소속회원들이 '우리민족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국민캠페인'을 벌이고 범국민실천운동 5대지침을 발표하다. 한상렬 대표의 캠페인 취지말, 김성일 한총련 15기 조동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15 청·학연대 전국순례단의 대국민캠페인 계획발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통일업서쓰기, 범국민 서명운동 등 5대지침을 발표하다. 회원들은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통일업서쓰기 운동에 들어간다.

✎ 인사동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회의를 열다. 경과보고에 이어 열린우리당 대표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면담요청 건,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 및 통일부장관 면담건, 송환 비전향장기수 상봉추진건, 송환대상자 재검검건 문제 등 논의하다.

02 서울고법형사 합의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재독철학자 송두율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사건 항소심 2차공판이 열리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가 나와 내재적접근법과 정치국후보위원 등 검찰의 공소내용과 1심공판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이며 학문적 입장에서 증언하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송두율 교수 석방대책위는 법원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회를 갖다. 김세균 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독일에서 온 일본인 기자 다미치로 가지무라씨는 학문활동의 학자를 감옥에 보내는 반민주 반인권 행태를 규탄했고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은 항소심에서 냉전정태가 아닌 시대상황에 맞게 무죄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정희 여사는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하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통일연대 학술연구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전략워크숍이 열렸음. 특위공동대표인 양재혁교수 사회로 김성란 통일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범남본 이경원 사무처장, 한정 전상봉 의장,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후보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다.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비전향장기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송환비전향장기수 면담을 위해 방북신청을 한 것과 관련 통일부가 불허통보 조치에 규탄성명서를 내다. 진상규명위는 잔혹한 고문 등 전향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박용서, 손윤규씨의 진상규명을 위해 2000년 9월 2일 송환된 최하중, 김선명, 안영기, 김은환, 최선옥, 김동기, 양성호 씨들 7명과 금강산에서 면담하기로 남북 사이에 합의를 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 제정(1948년) 후 2003년까지 56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고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공인문제연구소 등 공안수사기관 난립과 자의적 해석 수사관들에 대한 특혜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다.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에 의뢰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란 보고서를 통해 각종피해 사례와 경찰보안인력 변동추이 등 각종통계를 내고 있음.

03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주최로 '제15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강민조 유가협회장의 여는말 권오현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추모기간선포 취지말 강승규 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의 추모기간선포문을 낭독하다.

✎ 대전시 청소년수련원 공연장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통일연대 사업방향과 자주통일 활로를 위한 수련회, 토론회를 갖다. 한총목 집행위원장의 '조국광복 60년 분단 60년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방향'이란 발제와 통일연대 정책위원장의 '자랑스런 우리민족의 자주정신으로 민족공조 실현하여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발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있었음. 통일연대 중앙조직과 지역, 부문 등 대표자와 활동가 60여 명이 함께하다.

✎ KAL 858기 가족회와 KAL 858기 사건진상규명대책위는 양재동 시민의 숲에 세워진 '대한항공기 미안마 상공피폭 희생자 위령탑'에서 이 위령탑을 거부하는 상징의식을 가지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하지 못하다.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① 국정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 ② 검찰은 사건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즉각 공개하라. ③ 청와대와 국회는 858기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앞장서라 등도 요구하다. 가족회원들 차도로 나와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차옥정 회장 이윅회 이사 신동진 사무국장 등이 서초서에 강제연행 되었으나 오후 6시쯤 모두 풀려나다.

✎ 민가협 제521회 목요일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리다.

✎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후문앞에서 '9차 미러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와 주한미군 감축협상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동북아지역화 반대, 감축계획 반영이 안된 용산협상 즉각 중단할 것 등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다.

04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한겨레신문사와 북녘용천소학교 건립위원회가 함께하는 '용천 친구야 학교가자' 캠페인을 벌이면서 용천소학교 명예 학생되기 행사가 진행되다. 이 행사에서 북녘 용천참사 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벌여온 양심수후원회는 7,546,000원을 전달하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호현, 소수영, 김명숙, 권오현이 함께했음. 특히 자연어린이집

김명숙 원장님과 어린이들이 331,000원을 양심수후원회 모금에 함께했음. 감사합니다.

✧ 6·15 공동선언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에 양심수후원회에서 대표 2명을 가기로 하여, 운영위원들 사이에 논의해서 권오현, 소수영 회원을 선정했음. 또한 비전향장기수 송화추진위원회 대표로 김재현 회원이 선정되었음.

✧ 성남시 운중동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전문연)에서는 남북 해외 사회과학자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근 현대사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일본의 우경화'란 주제로 남북공동학술회의가 열린다. 이 학술회의는 남측의 정문연과 북측의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국 연변대 민족연구원의 공동으로 2001년 8월 중국연변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심양, 이북의 백두산, 평양에 이어 4차회의를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임. 4차회의에는 이북에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최상순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송동원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 소장, 정치권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장, 리창국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차명철, 강수현, 리창원, 정명송, 리치현 등 사회과학자협회 소속학자들이 함께했고, 중국에서는 최문식 연변대 민족문화연구원장 등 4명이 남측에서는 이서행 정문연교수 신용하 백범학술원 원장, 박성수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23명이 함께했음.

✧ 설악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남북장성급회담 이틀째 군사회담에서는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에서의 선전활동 그 수단제거 방안에 대해 합의하다. 해상충돌방지를 위해 양측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상대방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금지 함정의 항로이탈 조난구조와 관련 대처방지와 오해 불식을 위해 국제상선 공동망(156.8MHz, 156MHz) 활용,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제정활동, 불법조업 제3국 어선단속 상호협력 등 합의했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방송과 계사문, 전단 등 선전활동금지, 선전활동수단 제거(6.16~8.15)하기로 하다.

05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범남본후원회, 양심수후원회 등 64개 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지하철노조,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21, 통일뉴스, 한겨레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6·15 공동선언 발표 4돌기념 제2회 6·15 통일마라톤 대회가 6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다. 문경식 공동조직위원장 개막선언에 이어 10km, 6.15km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 남녀개개인상, 단체상 등이 주어졌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소수영, 조명희, 이용준, 김대규, 송창학, 노혁, 임미영, 노수석, 이창희, 김혜정, 권오현 등 함께하다.

✧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6·15 공동선언 4

돌기념 우리민족대회 인천지역 추진위원회 주최로 '인천시민 통일축제 선포식 및 환영마당'이 열린다. 인천추진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축제기간으로 예술회관 앞 거리를 통일거리로, 앞 광장을 민족대단결광장으로 선포하다. 인천추진위 김성복 집행위원장 사회로 공동추진위원장 오용호 신부의 인사말, 오종렬 공동본부장의 축하말 등이 있었음. 문에 마당에서는 가수 권진원, 박완규,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출연하다.

✧ 남과북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제9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건설일정 10월까지 경의선, 동해선 도로개통,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등 7개항에 합의하다.

06 서울 능동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김해경 부대표가 총투표자 1만 6,629명 가운데 1만 702표(64.4%)를 얻어 정운광후보 4,116표를 누르고 당대표에 당선되다. 당 사무총장에는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이 선출되었고 최고위원에는 최규업 자주통일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초대부위원장, 김중철 대변인, 김미희 성남수정지구당 위원장, 이정미 이라크파병 대책위원장, 유선희 서청협위원장, 박인숙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이용식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하연호 김제,완주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되다.

07 여의도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17대국회 개원에 즈음한 통일연대 기자회견'을 열다.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취지말,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이 17대 국회에 요구한 정치연설, 조순덕 민가협상임의장의 의견서 낭독 등이 있었음. 마치고 조순덕 상임의장과 임기란 전상임의장, 이규재 부의장과 실무대표들은 국회로 들어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의견서를 전달했고 권영길, 천영세 의원등 민주노동당 대표들에게 직접 전달하다. 의견서에서는 '이라크 파병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불평등한 한미동맹청산, 6·15 공동선언 이행' 등을 촉구했음.

✧ 용산 국방부에서 평통사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공동으로 제9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요구서에서 주한미군 역할확대반대, 한미동맹의 대중국포위동맹으로의 전환기도 중단,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굴욕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 중단과 전면재협상 등을 촉구하다. 마치고 제9차 FOTA회의가 끝날 때까지 농성에 들어가다. 홍근수, 한상렬, 정광훈, 권오현 대표등 국방부 민원실에 요구서 전달하다.

✧ 제9차 FOTA회의에 온 미국측단장 롤리스 국방부 야태담당차관보 등은 정부 측 3인위원회,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

장 등에게 1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을 말하고 여기에 이라크로 배치될 미 2사단 3,600명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3년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한 황대권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기간 갱신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안관찰 처분은 형벌이 아닌 예방조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08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전쟁 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다.

☞ 국방부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가 웅산기지 등 부지제공 문제의 이견으로 사실상 결렬되다. 7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평통사 등 농성을 풀다.

09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확대 강화할 것과 폐지투쟁 선포문 내용 등을 검토하다. 이어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대표인사말, 황상익(학계), 이석태(법조), 이명순(언론), 한상렬(평화통일), 임기란(인권), 전상봉(청년), 이경수(학생), 강승규(노동) 등 각계 대표의 철폐촉구 발언이 있었고 이기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문경식 전농의장이 선포문 낭독을 했음.

☞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 우리민족대회 전면참가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중린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권오현 통일연대 국보철특별위 위원장,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범민련, 한총련, 범청학련 등 참가보장 촉구발언과 나창순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통일부에 보내는 촉구서한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나창순, 권오현, 심재환 변호사 등 통일부에 촉구서한 전달하다.

☞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상임대표자회의 열고 6·15 공동선언 발표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 일정점검과 금강산 실무접촉 경과보고를 받다. 또한 우리민족대회 선별배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다.

☞ 동국대 학림당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연합 결성 10주년 기념 및 우리민족대회 성사 결의대회가 열리다.

10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앞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 주최로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노진민 집행위원장 사회로 임기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이용길

통일불교연대위원장, KNCC 인권위 황필규국장, 고난모임의 김영엽 간사등이 송환촉구 발언이 있었고 권오현, 혜조스님 등 상임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이어 박종린 송환희망자의 신상발언이 있었음. 마치고 권낙기, 혜조스님, 진광수목사, 권오현 상임대표 등과 노진민 집행위원장이 통일부 김진구 서기관에 2차 송환촉구서한과 통일부장관 면담요청서를 전하다.

☞ 국회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열사정신 계승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여는말,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권오현 상임공동대표, 서경순 민가협 전상임의장, 민주노총 이해선 통일위원장 등 폐지촉구 발언 신귀연 서울대 공대학생회장의 선포문낭독이 있었음.

☞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제15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행사위원회 주최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민중연대 통일연대 주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노동당 인권위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등 후원으로 '제15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오종렬 행사준비위 상임공동대표의 대회사,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백종호 한총련의장 등 추모사와 노래패 우리나라, 춤패 출, 가극단 미래, 국립극장노조 등 추모공연이 있었고 남상현 행사준비위 상임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 강민조 유가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화시간, '함께가자 이길'을 함창하며 마치다.

☞ 국회 앞에서 한총련과 통일연대, 수배자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11기 한총련 정재욱의장의 기소규탄과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합법화 대국민요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마치고 백종호 한총련 의장과 한총련 학부모들은 국회에 들어가 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에 요구서 전달하다.

11 청와대부근 새마을금고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우리민족대회에 범민련, 한총련, 범청학련 등 참가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이천재 민주주의 민족통일 서울시연합 상임대표의 여는말, 임방규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윤경희 범청학련 청년부의장 등이 보장촉구 발언을 했고 나창순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성균관대학 수선관에서 통일연대 학술특위와 학단협,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공동으로 남북공동선언 4주년기념 토론회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6·15 공동선언의 현재적 의의' 주제로 열리다. 김세균 교수 사회로 장시기 동국대교수의 '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통일의 탈근대적 대안', 서재성 코넬대교수의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본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강정구 동국대교수의 '참여정부 평화통일 정책과 6·15 공동선언' 등의 발제가 있었고, 이장희 외대교수,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소장, 안정에 평화여성회 국방과제팀장 등이 토론하다.

- 12**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 공동선언 이행 우리민족대회 성사 반미민족 공조를 위한 자주통일 대행진'이 진행된다. 소속단체 성원과 한총련 학생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상렬 상임대표의 행진선언에 이어 풍물패를 선두로 단체마다 다양하고 특이한 반미반전 자주통일의 표현물과 상징물을 들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광화문 교보문고 앞길에서 정리 집회를 하다. 나창순 범남본의장과 백중호 한총련의장의 민족공조 자주통일의 정치연설을 하다.

☞ 대행진 정리 집회를 마친 곳에서 여중생범대위 주최로 '효순 미션 두 여중생 2주기 추모대회'가 열린다.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전 문화공연에 이어 1부 촛불의 약속 자주평화의 약속에서는 홍근수 목사의 대회사,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문정현 신부, 백중호 한총련의장 등의 추모사와 주한미군범죄 이라크 파병철회 등 발언이 있었고, 2부 촛불의 힘 파병을 막자, 3부 대동놀이 등으로 이어지다.

☞ 옴시룸감시룸 보라매공원에서 6월 모임을 갖고 서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바자회를 열어 7월 정기기행문제 등 논의 30여명이 모여 다시 한번 친목을 도모하다.

- 13**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16차년도 회원교양강좌를 시시모임 주관으로 한홍구교수(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제로 열린다. 장기수선생님과 후원회원 등 27명이 함께한 가운데 평화에 대한 보편가치, 반전평화의 당위성, 분단조건에서 동족을 겨누는 전쟁은 민족적 양심에 서로 거부되어야 한다는 갖가지 사례, 자료 수치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해박한 지식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적 기억으로 더욱 실감난 강의를 하다.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그 자리에서 뒷풀이를 하며 특히 이날 단국대 법사회학회 이은경학회장과 승현, 지선, 장훈학생이 함께하여 단국대 대동제기간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후원을 위한 주점을 열어 번돈 모두를 (690,000원) 양심수후원회에 전해주다. 감사합니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행동의 날' 행사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해외참가자로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인드라씨,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등 발언 등이 있었고 경제포럼이 열리고 있

는 신라호텔쪽으로 행진-동대문운동장에서 대회를 마치고 합류한 전국노점상연합회원 5000여명과 함께하여 정광훈, 오종렬, 이수호, 문경식, 단병호 대표 등 신라호텔 포럼당국에 항의서한 전달하다. 이보다 앞서 대학로에서는 쌀개방저지, 식량주권사수 농민대회와 반전 반세계화 자주통일 민주노총결의대회를 열었음. 이날 집회에는 일본의 아시아공동행동과 전기통신노조, 교직원노조, 네팔의 전국노조, 인도 여성연맹, 필리핀 전국여성연맹, 홍콩세계화모니터, 인도네시아 농민연합, 대만 친청 노동자건강안전서비스센터,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타이 등의 시민 단체 등 아시아권 10개국에서 54개 비정부기구 160여명이 함께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동대문운동장에서 '노점탄압분쇄 빈곤해결 반전 신자유주의 집회'를 열었음.

- 14** 정부청사(통일부)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6·15우리민족대회 참가 선별불허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나창순 범남본 의장의 여는말, 윤경희 범청학련 남측본부 청년부의장, 김성일 한총련 조통위원장의 규탄발언, 권오현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상렬 상임대표는 통일연대 상임대표 결의를 거쳐 선별불허방침에 항의하여 우리민족대회에 참가 하지 않기로 하다.

☞ 6·15공동선언 4돌기념 우리민족대회에 참가할 김정호 단장 등 북측대표 103명과 해외대표 23명 그리고 4돌기념 국제토론회에 참가할 리종혁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참가자 7명 등이 조선 민항기로 인천 공항에 도착, 관계부처 대표들의 환영을 받다. 우리민족대회 참가단은 인천송도비치호텔에, 국제토론회에 참가할 대표단은 홍제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 여장을 풀다.

☞ 그랜드호텔에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주최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토론회대표단을 위한 환영만찬이 있었음. 만찬에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만찬사, 리종혁 부위원장의 답사 등이 있었음. 만찬에는 임동원 전 대통령 특보 정세현 통일부장관 도널드그래그 전 주한미대사 등 많은 사람이 함께하다.

☞ 인천시청홀에서 우리민족대회에 참가할 북측, 해외 및 남측 대표단 632명이 함께한 인천시장 주최 환영만찬이 있었음. 양심수 시장의 환영사, 정치건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며 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과 해외 대표로서 박성우 재일민단본부 평화통일추진위원장의 답사가 있었음. 이날 만찬 주석단에는 1993년 3월 17일 송환된 인민군 중군기자 리인모 선생의 따님인 리현옥 개성고등중학교 교장도 함께하여 많은 분들의 인사를 받았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현회장과 김재현회원, 김해정간사가 함께 했음.

✧ 남북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부속합의서에 따라 1962년부터 42년간 이어온 확성기 방송을 15일 0시를 기해 중단하다. 또한 서해바다에서는 남북함정사이에 '백두산'과 '한라산' 교신에 성공했고 '깃발'과 '불빛' 신호로 교환함으로써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위험을 사라지게 하다.

15 우리민족대회 본 행사를 마친 다음 오후 4시부터 보조경기장에서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체육오락경기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주와 통일 팀으로 나누어 '심봉사 럭비공 굴리기', '통일지도 만들기', '룬 안에서 공치며 달리기', '공 안고 달리기' 등을 벌인다. 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주와 통일 팀으로 나온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하다.

✧ 밤 8시40분부터 문학경기장 SK아구장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4돌 우리민족자랑 남북예술공연'이 열린다. 남북해외 대표를 비롯하여 한총련 학생들과 일반시민 등 20,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북측과 해외 대표단이 입장하자 단일기를 들고 함성을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다. 먼저 남측에서 신동진 아나운서 사회로 어린이들의 합창, 통일노래 친구들을 불렀고, 노래패 우리나라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에 이어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의 '향수', 안숙선의 여러분의 '남한산성', '진도아리랑', 김원중의 '직녀에게',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테너 임용근의 '밀양아리랑' 등 공연이 있었음. 이어 북측의 김경애 중앙문화회와 소조원 사회로 9명의 여성합창단이 나와 '반갑습니다'를 여는 무대로 불러 관중들이 따라 부르며 열광하다. 이어 여성4중창 '내 조국은 어디가나 노래 넘치네', 남성독창(김일유 문화회관 소조원) '산천가', 여성독무 '환희', 여성독창 '심장에 남는 사람'을 리영애 소조원이 열창하여 대한호를 받고 재창에 응하기도 했음. 이어 여성2중창 '고향의 봄'을 리경, 맹향성 소조원이 불렀고, 여성독창 박준금 소조원의 '어랑타령', 남성4중창 '올려가라 기쁨의 노래'를 중앙방송위원회 리남기자의 3명이 불렀고, 여성독무 '장고춤', 손풍금 독주 '통일이리랑'을 조승권 소조원이 연주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여성독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리금희 소조원이, 여성6중창 '민족공조 제일일세', 여성독창 '우리 민족 제일일세', '평북연변가'를 박경애 소조원이, 여성독창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을 박순보 소조원이 마지막으로 출연지 모두 나와 '우리는 하나'를 합창하다. 이때 20,000관중이 모두 일어나 대합창을 하다.

✧ 자정을 지나 1시30분 문학경기장 컨벤션 홀에서 남북해외 대표와 특별초청인사 등 450여명 축하연회가 있었음. 한총련 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해외대표로 리종환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회회장, 북측 김성호 단장, 남측 한명숙 의원들이 건배사를 했음. 연회테이블마다 남북해외대표, 민족

의 공동과제 등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간을 가졌음.

✧ 부평역 광장에서 한총련학생과 통일연대 소속회원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6·15 공동선언 4돌 기념 민족자주 결의대회'를 열다. 전상봉 한청의장 사회로 한상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나창순 범남본의장, 전국공무원노조 민정기 부위원장 등이 결의발언이 있었고, 백종호 한총련의장의 민족자주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대회에서는 희망새 등 노래 공연도 있었고, 마치고 SK아구장 우리민족 예술공연장으로 이동하다.

16 인천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6·15 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폐막식이 열린다. 남측의 김중수 행사집행위원장과 북측의 길상봉 농근맹 부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정호 북측단장, 해외대표로 양영동 재중연합회장이 폐막연설을 하고 단일기를 내림으로 이틀간의 우리민족대회 모두마침. 이보다 앞서 남과 북 해외대표 700여명과 일반시민 1000여명 등은 6·154돌 기념 6·15Km 마라톤경기에 나서다. 선수들이 들어 올때 대표를 열렬히 응원했으며 마라톤을 마치고 잔디경기장에서 북측대표들과 마라톤 참가자들 즉석 문화예술공연을 하다. 특히 중앙문화회관 박수련, 리영애 소조원이 북쪽노래에 맞춰 인형춤 솜씨를 보여 갈채를 받았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소수영, 김재현, 임미영 회원이 마라톤에 참가했고 폐막식에는 김혜정, 권오현도 함께하다.

✧ 6·15 4돌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했던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들은 연세대 전자도서관과 SBS 방송국, SK텔레콤, 삼성전자공장 등을 방문 견학하다.

✧ 우리민족대회를 마친 북측과 해외대표단은 이날 오후 강화도 초지진 덕진진 강화 지식모 등을 돌아보다. 저녁에는 문학경기장 컨벤션홀에서 환송만찬이 있었음. 남측에서 윤재철 민화협 상임의장, 해외대표로 최철교 재일 한국인권센터 운영위원이 북측에서는 장금숙 조선여성협회 중앙위원이 각기 고별인사말을 하고 안상수 인천시장이 건배사를 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소수영회원이 함께했음.

17 6·15 4돌 우리민족대회와 국제토론회에 참가했던 북측대표단 일정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남측관계자들 환송받으며 평양으로 떠나다. 북측대변인 한홍희 민화협 중앙위원은 '올해 우리민족대회는 민족제일주의의 숭고한 이념 밑에 민족의 단합을 촉진하고 자주 통일의 가치를 드높이게 한 대회였다'면서도 '남측당국의 선별배제방침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범청학련남측본부 구성원들이 공식 참여하지 못하여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다.

✧ 범민련남측본부는 6·15 민족대회에 참석했던 범민련 해외

동포 관계자 6명을 구기동 한 음식점에 초청 오찬모임을 갖다. 해외동포로는 일본에서 온 최철교 전민특위 해외본부 부의장, 유럽에서 온 이시숙 범민련 유럽본부 중앙위원, 미 주지역의 현준기 범민련 재미본부 고문, 오영철 재미본부 시카고지역위원, 하용진 재미본부 사무국장, 김영희 민족통신 기자 등이 있었음. 범남본에서는 나창순, 이종린 의장을 비롯하여 부의장, 지역위원장, 고문과 사무국요원들이 함께했고 사회단체에서는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노수희, 이천재 전국연합공동의장, 임방규, 권낙기, 박종린, 김영성 등 통일광장 선생님들, 강민조 유가협회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백종호 한총련의장, 김성일 조국통일위원장 등 한총련학생 등 60여명 함께하다. 이경원 사무처장사회로 나창순 의장의 환영인사말, 최철교 대표 등 6명의 답사, 권오현, 노수희, 강민조, 백종호, 김성일 등... 축사와 인사말 등이 있었음. 오찬을 마치고 모두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을 찾아 문익환목사, 박종철, 전태일, 김귀정, 이범영 열사 등 많은 민족민주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하다. 강민조, 권오현 열사묘소 설명하다.

☞ 집권여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추가파병에 대한 16대 국회의 결의 효력을 존중하기로 결정'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구체적인 파병지역, 일정 등을 최종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8 통일연대, 참여연대 등 351개 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의 파병당론 결정을 항의 규탄하다.

☞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자이툰부대를 7월 중순부터 아르빌지역에 단계적으로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병계획안을 최종확정하다.

☞ 송두율교수 부인 정정희 여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사기관의 부당한 계구사용 금지를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다. 진정서에서 정여사는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송교수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포승줄 등 계구를 사용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다.

☞ 4월혁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창립16주년 기념 및 82회 월례발표회를 갖다. 발표자 김승교 변호사는 '한미동맹의 문제와 대안'이란 주제 강연에서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민족공조'를 강조하다.

19 이라크파병비상국민행동은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6월말에서 7월초까지를 이라크파병반대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23~30일까지를 '이라크파병철폐촉구국민행동주간'으로 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다.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부당하게 구속 1심 재판에서 4년형 선고를 받은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면회하다.(권오현) 건강은 좋은 편 이었고 항소심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6·15공동선언 이행과 인권침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함.

☞ 한총련소속 대학생 22명이 파병당론을 결정한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기위해 기습시위를 벌이다. 영등포경찰서 등 4개 경찰서에 강제 연행되다. 학생들은 이라크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 제마부대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다.

20 양심수후원회 6월산행의 날 - 예정대로 당고개역에서 모여 불암산 등반을 하다. 비가 오고 있었지만 언제나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장기수 선생님들과 한양대 여든 여덟 옛 탈



춤패들이 함께하여 모두 17명이 경관 좋은 폭포수계곡을 가파르게 오르다가 왼쪽능선으로 전망 좋은 곳에 이르러 소개시장을 갖고 기념촬영도 했음. 또 다시 당고개 쪽으로 내려와 가져온 도시락과 해장국물로 늦은 점심식사를 뒤돌이켜보다. 이 자리에서는 6·15 공동선언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진행과정 등 설명도 있었음. 반숙현, 김교영, 유기진, 강담, 박홍근, 신현익, 나순철, 이득형, 이웅준, 박철민, 김영철, 김민겸, 이병권, 유병수, 김은영, 권오현 함께

21 2003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며 11기 한총련 의장이었던 정재욱학생을 영등포구치소로 면회다녀오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재욱 의장은 오는 6월 23일 1심공판이 열린다며 재판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한총련 수배자였던 이승준 어머님(한명옥님)과 권오현 다녀오다.

☞ 미군군납업체에 근무하는 김선일씨가 이라크저항단체인 '사마이트 알 타우히트 알 지하드'(일신교와 성전)에 피랍되어 24시간 안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철폐, 한국군철수' 등을 조건으로 김선일씨를 처형하겠다는 아랍어 위성방송(알 자지라)가 새벽 5시 보도하다. 방송에서는 김선일씨가 '나는 살고 싶다. 한국군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음.

☞ 청와대 부근 옛 정부청사 앞에서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한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열고 대통령에게 이라크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할 것 촉구하다. 오종렬 의장의 여는말, 홍근수평통사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기란 전민가협 상임의

장 등 파병철회 촉구 발언과 변연식 평통사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정현백 여성단체연합의 저항단체에 보내는 호소문 낭독 등이 있었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계승연대 주최로 '민주화 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다. 이덕우 계승연대 명예회복위원장 사회로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수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기념사업', 정태상 변호사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유공자법제정의 필요성' 등 발제와 감삼웅 보성삼의의원,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한나라고진화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이 토론에 함께하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김선일씨의 무사귀환과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다. 500여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김해경대표의 여는말, 홍근수 평통사 대표, 손봉숙 민주당의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이 무사귀환과 파병철회촉구발언이 있었고 노래와 구호 함성 등으로 새벽1시까지 이어지다.

부산 서면 주디스제화 앞에서 '파병반대부산시민 평화행동' 주최로 김선일씨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촛불시위가 열림. 촛불시위 현장에는 김선일씨의 아버지 김종규씨와 어머니 심정자씨가 나와 '정부는 우리 아들을 살려 달라'고 호소

23 청와대부근 옛 정부청사 앞에서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김선일씨의 무사귀환과 이라크 파병결정 철회,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열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홍근수 평통사 대표의 규탄발언, 나창순 범남본의장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화협,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공동으로 '17대국회에서 남북협력법 제도, 정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다.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의 홍근수, 진관스님, 권오현 등 대표와 집행부 일꾼 등은 국회의원회관 여야의원 50명 사무실을 방문.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서명을 촉구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당론으로 전원 서명했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는 개인적으로 추가파병을 반대하지만 파병결정 등에서는 당론을 따르겠다는 의원이 많았음.

광화문 교보빌딩앞에서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틀째 김선일씨 무사귀환과 파병철회를 위한 촛불집회열다. 김배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회로 권오현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여는말,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등과 자유발언 시민이 잇따라 파병철회 발언이 있었음. 비가 오고 있었지만 500여 참가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마지막까지 집회에 함께 했음.

새벽 비참한 소식이 전해지다.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되었던 김선일씨가 살해되었다고 보도되다. 24시간 시한 두고 한국군철수와 추가 파병중단을 요구해왔던 알 라후히드 알 지하드(유일신과 성전)는 정부의 추가파병원칙 고수에 맞서 처형한 것으로 보도하다. 김선일씨의 시신은 22일 오후 2시 20분경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팔루자 쪽으로 35km 지점에서 미군당국에 의해 발견 되었다고 하다. <알 자지라>는 김선일씨가 사망 바로 전 모습의 비디오테이프 방송을 내보내고 '참수' 되었다고 보도하다. 김선일씨는 이미 5.31일 피랍된 것으로 외교통상부가 뒤늦게 발표하다.

국회본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원웅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부대의 이라크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다. 함께한 50명의원은 열린우리당 27명 민주노동당 10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7명 등이다.

이라크파병국민행동은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김선일 피살사건에 즈음한 제 시민사회단체긴급기자회견'을 열다. 100여명 소속단체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한총목집행위원장 사회로 강민조 유가협회장의 조사, 정현백, 나창순, 홍근수, 서주원씨 등 애도와 파병철회발언이 있었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최선희 평화를 여는 여성회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마치고 대표들과 김선일씨 분향소에 분향하고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가다.

2002년 서충련의장이며 광운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정종성 학생이 서강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가 장안동 보안수사대원 10여명에게 강제연행당하다. 광운대 학생 등 50여명과 민가협 어머니들 한총련 학부모 사회단체대표들은 장안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정종성학생의 석방을 촉구하다. 각 대학 학생들과 함께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서경순 민가협 전 상임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등 국가보안법 철폐와 강제연행 규탄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다. 학생대표 2명과 권오현 대표 등 3명이 면회를 하자 정종성 학생은 연행과정에서 팔꿈치 등에 찰과상 부상을 당했다고 했으며 한총련의 정당성 등 몇몇하게 조사받고 있다고 했음. 이보다 앞서 부모님과 유재성변호사가 면회를 했음.

국민행동 주최로 교보빌딩 앞에서 '파병압력 미국규탄 파병결정철회 고 김선일씨 추모촛불집회'를 열다. 정대연 국민행동 정책기획단장 사회로 정광훈대표의 여는말,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 등의 추모 및 파병철회 발언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추모의 노래 등이 있었음. 2부순서는 한총련 백종호의장 다함께 김여진,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연구원 등의 발언과 손병헌, 꽃다지 등 추

모공연이 이어졌음.

24 서울중앙법원 서부지원 303호실에서 서부지원에서 한총련 11기 의장 정재욱 2003년 연세대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첫 재판이 열렸음. 인정심문에 이어 검사의 직접 심문이 있었음. 정재욱 의장은 5.18국립묘지에서의 굴욕외 교규탄 피켓시위와 한총련 각종문건 범청학련 부의장으로 서 행사에서의 발언 등 정당성을 말하다. 마치고 법원 뜰에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진행으로 정리 집회를 갖고 이규재 범남본 부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정재욱의장 아버님의 재판소감과 국가보안법폐지 당위성 등 발언이 있었음.

☞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변정수 보상심의위원장, 김삼웅 심의위원 등과 오종렬, 강민조, 남상헌, 권오현 등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들 사이에 연석간담회를 열다. 명예회복법 개정문제와 특별사건에 대한 심의지연 문제(예로서 남민전사건) 등 의견을 나누다.

☞ 탑골공원에서 민가협 524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서경순전상임의장의 여는말,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대표, 권오현 공동대표 등이 김선일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추가파병철폐를 촉구하다. 이날 목요일집회는 김선일씨 추모와 이라크 파병철폐를 내용으로 하다.

☞ 광화문교보빌딩 앞에서 김선일씨 희생 이틀째 추모촛불집회를 열다.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김진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노성단장 등 발언이 있었음. 또한 이날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사 조종사노조 등 6개노조로 구성된 항공노련은 이라크 파병군부대의 수송을 위한 비행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AP통신이 지난 3일 김선일씨가 납치된 직후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압수하고 외교통상부에 김선일씨의 피랍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히다. 그러나 외통부대변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힘.

25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주최 통일연대 주관으로 '고 김선일씨 추모와 이라크 파병철폐 촉구대회가 열리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열 상임대표의 여는말, 문경식 전농회장, 강기갑 민주노동당위원의 파병철폐촉구발언이 있었고 민애정 강신원 회장이 미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하다. 공개서한에서는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 즉각 중단과 김선일씨 피랍사건의혹을 밝히라고 하다. 마치고 흥근수목사, 진관스님, 권오현 대표 등 미대사관에 전달하다.

☞ 같은 자리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대학여학생회대표자협의회

등은 WTO 쌀개방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농민·학생 공동농활 선포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등 학생들은 이날부터 9박10일 동안 전국 100여개 시군 810개 농촌마을에서 '쌀개방저지 식량주권사수, 이라크파병철폐투쟁'을 하며 농활에 들어간다고 백종호 한총련 의장이 밝힘.

☞ 2000년 9월 2일 송환된 이중 선생님 따님 이해옥님을 부친으로 찾아가 뵈고 서로 안부를 전했음(권오현)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고 김선일씨 추모 3일째 촛불집회를 열다. 500여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추모집회 여는 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추모사, '우리나라'의 추모노래에 이어 자유발언으로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 김경수씨, 영어교사 김솔지씨의 편지낭독과 영어로 이라크 전쟁규탄 파병반대 발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과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의 AP통신과 외교통신부에 김선일씨 실종사건 문의와 관련된 노무현 정부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26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3차 6자회담이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3박 4일의 공식일정을 마친다. 의장성명에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단계적인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제4차 6자회담을 9월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하다.

☞ 이라크에서 피랍되어 희생된 고 김선일씨 시신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5시 25분), 부산으로 다시 운구 되어 빈소를 차린 부산의료원에 안치되다.

☞ 광화문 종로거리 4차선을 차지한 가운데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파병 철폐 고 김선일씨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1만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한총목집행위원장 사회로,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었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신세실리안 시인의 추모시 낭송, 이수호 민주노동위원장, 나해집 한국기독교 장로교평화통일위원장의 추모사가 있었음. 2부에서는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청소년모임 '희망'의 박희영, 봉인권 학생들, 민연련의 최민희 사무총장 등이 추도말과 파병철폐발언이 있었음. 이어 가수 안치환의 노래, 춤꾼 이삼현씨의 '형상무', 고인의 마지막 절규모습을 담은 영상물상영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모성룡, 정인태, 소수영, 임미영, 김재현, 김현숙, 김혜정, 노혁, 장재욱, 정향숙, 이용준, 권오현 등이 함께함

☞ 금강산에서 27일부터 열릴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할 남측참가단 637명이 육로로 금강산에 도착, 북 농근맹 김명철 부위원장 등의 영접을 받다. 참가단은 북측의 교예단 공연을 관람하다.

27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농민통일대회는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공동성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리다. 공동성언문은 *

6·15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할 것 * 민족공조로 전쟁을 막고 남북농민들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할 것 * 민족농업을 발전시키고 남북 농민들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투쟁할 것 등을 결의하다.

☞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주재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전상봉의장에게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을 적용시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정대일, 이승호, 박장홍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다. 최병모 민변 전회장과 장경욱변호사는 변론에서 이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무죄석방을 주장하다. 한청 간부들도 6·15공동선언시대 국가보안법 적용의 부당성과 조국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최후진술에서 주장하다.

28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주최로 '한청에 대한 검찰의 이적단체 구형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다. 이승호 집행위원장 사회로 전상봉의장의 여는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신건수 부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한청은 이날 오후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에 들어가다.

☞ '민중의 소리' 이만숙 기자 낙성대 '민남의 집'을 방문.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과 관련 권오현 송환추진위 상임공동대표와 인터뷰.

☞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로 '고 김선일씨 추모 및 파병철폐촉구미사'가 열린다. 이해 인수녀님의 '슬픈 기도' 시낭송, 인천교구 갑곶 성지 조병연신부의 강론, 김인국 천주교구 오송 본당 주임신부의 선언문 낭독 등이 있었음. 미사를 마치고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촛불집회장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제지로 몸싸움을 하다.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만행에 맞서 미대사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다. 끝내 종로경찰서장의 사과를 받아내고 광화문 추모 촛불집회에 합류하다.

☞ 열린우리당은 상임중앙위원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임종석 대변인이 밝힘

29 대전·충남지역에서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결성준비와 관련 서울(중앙)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 관계자와 업무협약자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장과 길용수 사무차장이 서울에오다. 천주교통일후원회사무실에서 권오현, 권낙기, 상임공동대표와 노진민 집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다.

☞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평화통

일시민연대, 평화를 여는 여성회 등은 '이라크파병철폐 국방비 증액 및 무기도입 반대, 용산기지이전협상 가셔명반대,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국방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대북선제공격용 무기도입즉각중지와 예산액 전액삭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폐지 등을 촉구하다.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소속 103단체)은 열린우리당의 테러방지법 재추진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다.

30 안국동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끝남에 따른 계승연대 대국민 담화문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사회자의 진상규명활동보고, 권오현 상임공동대표의 국정원, 국군기무사 등 관련기관 비협조 및 조사거부사례보고, 강민조 상임공동대표의 대국민담화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고법 형사 합의 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주재로 재독철학자 송두율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들며, 무죄석방을 주장했고 송두율교수는 '역사는 분명히 나의 무죄를 기록할 것'이라며 양심적 학문활동과 남북화해협력활동의 정당성을 밝힘. 마치고 법원계단에서 김세균대책위 상임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정리집회를 열다. 권오현 함세웅, 오종렬 임기란 등 각계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송교수의 무죄석방 촉구발언. 독일에서 온 솔츠 변호사의 재판방청소감 발언 등이 있었음.

☞ 광화문 교보문고 앞 종로거리에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김선일추모, 파병철폐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주권이양규탄 범국민대회'를 열다. 제1부 추모제로 초록정치연대 서형원 간사 사회로 김숙임 평화를여는 여성회 대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의 추모사와 가수 오지총의 추모노래, 연극배우 한영애씨의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2부추모문화제는 정보선 인천연합집행위원장 사회로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무대에 올라가 개별인사를 했고 민주당 손봉숙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한나라당 고진화의의원 열린우리당 김광철의원이 김선일씨 추모와 파병반대 결의발언이 있었음. 이어 이라크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평화운동가 윤정은씨의 이라크 민중이야기, 고등학생, 출판노동자라고 밝힌 청년의 자유발언, 영상상영 등이 있었고, 송병환, 우리나라 등 노래공연 등으로 모두 마쳤음.